Entertainment p/18

“작은키 덕 볼 줄 몰랐어요”

metro

메트로 2014년 1월 24일 금요일 제[illegible]호 www.metroseoul.co.kr

Sports p/23

‘日 괴물’ 다나카 양키스행

김연아 이상화 ‘올림픽 2연패’ 눈빛교환 빙판 위의 두 여왕 김연아(오른쪽)와 이상화가 23일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선수촌 챔피언하우스에서 열린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선수단 결단식에서 기념 촬영에 앞서 장난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이번 올림픽에는 선수 64명 등 역대 최대 규모인 113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한국은 금메달 4개 이상을 획득해 3회 연속 종합 순위 10위 안에 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관련기사 23면> /뉴시스

스팸·피싱 막는 ‘탐정폰’ 나왔다

SK텔레콤, 누가 왜 전화했는지 미리 알려주는 ‘T전화’ 첫선 영상통화·사진전송·감시카메라 가능한 TV ‘B박스’도 공개

A씨는 피자를 시켜 먹기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해 ○○피자로 전화를 걸었다. 상담원이 연결되자 화면에 동시에 메뉴가 떴다. A씨는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통화를 하며 주문하고, 할인 및 결제도 손쉽게 해결했다. 그간 PC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메뉴를 확인하고 전화로 주문하던 번거로움이 스마트폰 하나로 손쉽게 해결됐다.

B씨는 최근 주위로부터 스미싱 피해 소식을 접하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받지 않는다. 하지만 이 때문에 얼마 전 B씨는 중요 거래처로부터 걸려온 연락을 받지 않았다 낭패를 볼 뻔한 상황이 벌어졌다. SKT가 이 고민을 해결해줬다. 내 전화번호부에 없는 사람이 왜 내게 전화를 했는지 알려주는 ‘T전화’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 TV를 켜자 오늘의 날씨는 물론, 회사까지의 출근길 교통정보, 주요 뉴스기사를 자동으로 알려준다. 멀리 사는 부모님께 TV 영상통화나 사진 전송을 통해 아이들의 소식을 전할 수 있고, 집을 비울 경우 감시카메라처럼 집을 지켜준다. 이 모든 것이 TV 셋톱박스 하나로 실현된 것이다.

이동통신 서비스가 스마트폰과 TV를 새롭게 진화시키고 있다. SK텔레콤은 23일 서울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계 이동통신사 최초로 선보이는 ‘T전화’ ▲단순 TV를 넘어 ‘스마트 홈’ 기능까지 제공하는 홈 허브(HUB) 기기 ‘B박스(B box)’를 공개했다.

23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에서 모델들이 ‘T전화’와 ‘B박스’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우선 T전화를 이용하면 필요한 정보를 스마트폰이 알아서 알려준다. 대표적인 것이 전화번호. 보통 휴대전화에 저장되지 않은 특정 점포나 기관의 전화번호는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114 전화번호안내 등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했다. 그러나 T전화를 이용할 경우 약 100만 개의 번호를 바로 찾을 수 있다. SK텔레콤이 자체 개발한 복합측위기술을 적용해 현재 이용자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순서로 검색 결과를 보여주며 업체 홈페이지, 지도 등 관련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을 경우 누가 어떤 목적으로 전화했는지도 손쉽게 알 수 있다. 동일한 업체로부터 같은 전화를 받았던 사람들과 번호 정보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수신 화면에 ‘○○은행 카드 가입 권유’, ‘XX 보험 가입 안내’ 등이 표시되고 하단에는 ‘싫어요/괜찮아요’ 등의 메뉴가 배치돼 이용자들의 집단지성을 활용한 스미싱, 피싱, 스팸 차단이 가능하다.

아울러 자신의 요금제 확인 기능도 기본 탑재돼 T전화 내에서 자신의 음성통화 및 데이터 잔여량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스스로 통화량 및 데이터 이용량을 조절함으로써 보다 알뜰한 통신 서비스 활용이 가능해진다.

B박스는 홈 미디어와 홈 서비스를 결합해 ▲안전한 집 ▲편리한 가정 생활 ▲홈 엔터테인먼트 추구 등의 기능을 한 곳에 담았다. 미디어와 홈 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홈 런처를 구성했고,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해 업로드하면 TV를 통해 가족 간 공유가 가능하고 댓글 등을 통해 소통도 가능하다. 특히 자녀나 반려동물을 외부에서도 케어할 수 있다.

위의석 SK텔레콤 상품기획팀장은 “스마트폰 시대에 맞춰 관점을 깨고 첫 화면 혁신에 주력했다”며 “관련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외부 사업자들에게 개방해 ‘열린 협력을 통한 진화’를 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벼락치기 국감 그만! 6·9월로 나눠 실시

매년 정기국회에서 한 차례 실시했던 국정감사가 올해부터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분리 실시된다.

23일 여야는 최근 원내지도부 간 접촉을 통해 이 같은 내용에 잠정 합의했다.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올해부터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시기가 당겨진다”면서 “그 일정에 맞춰서 국정감사를 상반기에 한 번 실시하고, 후반기에 종합국감을 하는 식으로 실시하기로 여야 간에 얘기됐다”고 말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수석원내부대표도 “국감을 6월, 9월에 10일씩 두 차례 실시키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매년 정기국회 때 20일간 실시해온 국정감사는 상반기, 하반기에 각각 10일 정도씩 나눠서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여야는 2월 임시국회 회기를 3일부터 28일까지로 하며 그 기간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 대정부 질문 등을 실시키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 문제와 관련,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정 수석부대표는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활동 기간 연장을 제안했으나, 새누리당에선 아직 확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최용선기자 [illegible]

온 국민 속 뒤집어놓은 경제 수장

현오석 "카드사태 국민도 책임" "지금 염장 지르나" 여야 맹비난

여야 정치권은 지난 22일 현오석(사진) 경제부총리가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에서 국민도 책임이 있다는 듯한 발언을 한 데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23일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듣는 사람의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라며 "국민을 우시하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여론에 밀려 겨우 미봉책을 내놓는 당국에는 책임이 없다는 건 부총리의 발언을 납득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 "경제부총리는 국민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재발 방지에 사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책임은 당연히 따지고 물어야지, 도대체 눈 감고 넘어갈 생각인가"라며 "국민의 염장을 지르고 성난 민심에 불을 지르는 발언"이라며 현 부총리의 사과를 촉구했다.

민주당도 현 부총리의 발언을 강하게 비난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우리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이지, 정보 유출에 동의한 게 아니다"며 "이런 구분도 못 하는 분이 경제부총리로 앉아 계시다는 사실이 굉장히 가슴 아프다"고 질타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고위정책회의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은 정부가 책임을 묻는 국민을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오만과 무책임이 보인다"며 "어설픈 당국 대처로는 이번 사태가 절대 해결될 수 없다는 게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경제부총리 발언으로 다시 확인됐다"고 말했다.

/조현정기자 jhj@

미풍에 그친 금융권 '여풍'

기자 수첩

김빈지
<경제산업부 기자>

최근 금융권에서 '여풍(女風)'이 거세게 불고 있다.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한 이후 남성 중심의 보수적인 금융권에서 '유리천장'이 잇따라 깨지고 있는 것이다.

여풍의 중심에는 지난 연말 여성 최초로 은행장에 오른 권선주 기업은행장이 있다. 첫 여성 은행장 탄생인 동시에 기업은행 내에선 두 번째 공채 출신 은행장이다. 그는 단숨에 주목받는 금융계의 여성 리더가 됐다.

시중은행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하나금융은 지난달 29일 인사에서 여성 임원을 배출했고, 신한은행도 창립 이후 첫 여성 임원으로 신순철 부행장 보를 선임했다. 여성 인력의 더 약진에는 여성 대통령의 존재감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이 바람이 '반짝짜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새로 선임된 여성 임원들의 업무 영역이 자산 관리나 소비자 보호 등과 같은 여성친화 감성 업무에만 국한돼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여성 대통령 시대를 맞아 거세진 여풍도 몇년 만에 가라앉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그러나 금융권의 여풍이 '반짝 효과'에 그치지 않으려면 우선 육아에 대한 뒷받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육시설 등 다른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는 것이다. 휴직자들을 위한 재교육도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모처럼 불고 있는 여풍이 단지 '바람'처럼 지나가지 않기를 기대해본다.

원천징수 월 3만원 는다

월소득 600만원 이상 근로자…4인가구 기준 세부담 연 36만원 증가

월소득 600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세금이 월 3만원씩 연간 36만원 증가한다. 또 1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연간 120만원가량의 세금을 더 내야한다. 반면 6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세 부담 증가가 없거나 감소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등 22개 법안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친 후 다음달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월소득 600만원 근로자부터 세 부담이 증가해 1인 가구의 경우 월 51만원에서 54만원으로, 3인 가구는 38만원에서 41만원으로, 5인 가구는 34만원에서 37만원으로 원천징수 세금이 각각 늘어난다.

4인 가준으로 700만원 소득자는 월 6만원, 900만원은 7만원, 1000만원은 11만원, 1500만원은 19만원, 2000만원은 39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600만원 미만 소득자는 가구원이나 세액공제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세 부담 증가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한다.

또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1조합원주권 보유자가 1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입주권 전환 후 양도 시에 비과세된다. 해외에서 쓰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분기별 5000달러 이상인 사용자의 구매 실적과 현금 인출 실적은 관세청에 통보된다.

개정안은 세입 기반 확충 차원에서 도입된 고소득 작물 재배업자의 소득세 과세 기준도 10억원으로 정했다. 재외근무수당 중 특수지 근무수당, 생활비 보전액 등은 대상에서 빠진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지원을 확대했다. 수도권과 지방에서 10~35%의 비율로 적용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도 선원이 추가되고, 지식기반산업에 출판업과 공연예술업이 추가됐다.

중소 중견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 완화 차원에서 중소 기업간 매출, 수출 목적 국내 거래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 한도는 21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김희균기자 kes@metroseoul.co.kr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사의설 사실무근"

청와대는 일부 언론에 보도된 김기춘(사진) 비서실장의 사의설과 관련,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23일 청와대 관계자는 "김 실장은 박근혜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 동안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 등 정상적으로 업무를 해왔으며 사의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수행 중인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22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귀국길에 오르며 기자들에게 김 비서실장의 사표설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비서실은 관련 보도가 나오자 김 비서실장과 직접 연락해 사의 표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정기자

최원식·안덕수 의원직 유지

민주당 최원식(51·인천 계양을) 의원과 새누리당 안덕수(68·인천 서구·강화을) 의원이 대법원의 파기 환송으로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23일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012년 총선 때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선거운동 관계자에게 공직 제공을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는 이어 선거비용 초과 지출 및 이익제공 금지 규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꺼모(42)씨의 상고심에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보냈다. /조현정기자

"정보 유출 죄송합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고 관련 금융위·금감원 긴급현안보고에서 이신형 NH농협카드 사장이 자리에 일어나서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노조 "공기업 정상화 대책 반대…교섭 거부"

정부 "국민 지탄 받을 것…부채감축 등 강행하겠다"

정부가 공기업 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축소를 강행하기로 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2차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를 열고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추진을 지연시키거나 저지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로서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이 차관은 "경영평가제도는 시장에 의한 평가를 받는 민간기업에 상응하는 자극을 줘서 국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케 하려는 제도이지, 공공기관을 옥죄고 부담을 주려는 제도가 아니다"고 못박았다.

이보다 앞서 공기업 노조 측은 "방만 경영 등에 대한 공공기관 개선은 필요하지만 객관적 진단 없이 일률적으로 노조에 책임을 묻는 정부의 실효성 없는 정상화 대책을 거부한다"며 노사 교섭을 집단 거부하기로 했다. /이국명기자 kmlee@

역부족 충남 서천 금강하구에서 가창오리 3마리가 폐사한 채 발견된 가운데 23일 서천축협 관계자들이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금강 하굿둑 주변 방역 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AI감염 오리 55km 북상

서천 금강하구 폐사 가창오리도 고병원성 의심…7만여 마리 이동한 듯

을숙도서도 갈매기 사체 발견

충남 서천 금강 하구에서 폐사한 가창오리 3마리도 고병원성 H5N8형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 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방역 당국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강 하구에서 발견된 가창오리 폐사체를 부검한 결과 동림저수지의 가창오리와 같은 H5N8형 AI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게다가 이날 오후 3시께 부산시 사하구 을숙도 철새 도래지에 검둥오리류인 물닭 1마리와 붉은부리갈매기 1마리가 죽은 채 발견돼 관계 당국이 AI 감염 여부 등 원인 조사에 나섰다.

이번 AI 사태의 진원지인 전북 고창 동림저수지의 가창오리 7만여 마리가 금강 하구로 대거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림저수지와 금강 하구는 직선 거리로 55km 떨어져 있어 최대 10km인 방역 당국의 방역망을 넘어서게 됐다.

이에 방역 당국은 금강 하구의 가창오리 폐사체 발견지를 중심으로 반경 10km의 방역대를 추가 설치하고 방역대 안 농가의 이동제한 조치를 검토키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2일 오후 6시 기준 금강호에 가창오리 17만 마리가 활동 중이며 동림저수지에는 12만 마리, 영암호에 5만5000마리, 삽교호에 1만9000마리 등 총 36만4000마리의 가창오리가 활동 중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AI에 오염된 것으로 판명된 오리 농장이 9곳으로 전날보다 1곳 늘었으나 방역대 외 지역에서는 AI 감염 의심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살처분 대상은 32개 농장에서 사육 중인 닭·오리 43만1000마리이며 이 가운데 36만8000마리가 살처분됐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중학교 무상급식 단가 4100원

서울교육청 6.8% 인상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중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되는 중학교 무상급식에 학생 1명당 4100원을 지원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23일 '2014학년도 학교급식 기본 방향'을 발표하면서 중학교 무상급식 단가를 지난해 3840원에서 4100원으로 6.8% 올렸다.

중학교 급식단가는 식품비 2910원(71.0%), 관리비 266원(6.5%), 인건비 924원(22.5%)으로 구성됐다.

공립초 무상급식 단가는 지난해 2880원보다 8.0% 많은 3110원을 지원한다. /윤다혜기자

'신기하네' 23일 개막한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기증실에서 관람객들이 유물들을 보고 있다. 전쟁기념관은 기증실을 신설해 개관 이래 080여명으로부터 받은 1만3728점의 유물 가운데 2044점을 일반에 처음 공개한다. /연합뉴스

리비아 피랍 무역관장 몸값 안 주고 구출

정부는 리비아에서 피랍된 한석우 코트라 무역관장이 무사히 구출된 데 대해 리비아 정부에 사의를 표했다.

외교부는 23일 "우리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 아래 한 관장의 구출을 위해 적극 협력해준 리비아 정부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한 관장이 구출된 직후 리비아 외교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사의를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 관장 구출 경위에 대해 "리비아 공안 당국이 우리 측 정보와 자체 정보를 통해 수사를 진행, 납치범 신원과 위치를 파악해 설득과 위협을 병행한 작전을 효과적으로 실시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또 "정부는 리비아 정부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납치범에게 몸값은 지불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대처했다"면서 "몸값은 전혀 지불하지 않은 채 문제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윤다혜기자 ydh@

북촌 백인제가옥 복원 내년부터 일반에 공개

1940~50년대 서울 가회동 북촌 상류층의 삶을 보여주는 백인제 가옥이 복원돼 내년 일반에 공개된다.

서울시는 23일 가회동 백인제 가옥 복원공사를 오는 5월에 완료하고 이후 전시·체험 공간으로 일반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시는 복원공사가 마무리되면 활용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확정한 전시 체험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한옥 내부를 꾸며 내년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윤다혜기자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정치가 처칠 사망

1965년 1월 24일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정치가 윈스턴 처칠이 90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육군 장교와 종군기자를 지낸 처칠은 26세에 의회에 진출했고 1차 세계대전 때 해군장관으로 활동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중 영국총리로 취임해 연합군이 승리하는 데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했다. 초임총리로서 의회에서 "내가 바칠 수 있는 것은 피와 노력, 눈물, 땀뿐이다"라고 연설했던 그는 저술가로 역량을 인정받아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설 연휴 비상진료체계 가동

서울시 중랑구가 설 연휴 기간 동안 보건소와 의료기관, 약국과 협력해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한다.

당직 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 현황은 중랑구청 홈페이지(www.jungnang.seoul.kr)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http://health.jungnang.seoul.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민영 노외주차장 실태점검

서울시 마포구가 오는 31일까지 민영 노외주차장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대상은 50곳으로 ▲구조 및 설비 기준 준수 여부 ▲신·출입로 등 시설물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점검한다. 구는 조사를 통해 확인한 주차장의 위치, 운영 시간 등의 정보를 구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불법 벽보·전단 1만장 수거

서울시 도봉구가 관내 중·고등학생에게 지역 봉사와 사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실시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학생봉사활동'을 통해 불법 광고물(벽보·전단지) 1만2924장을 수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총 172명의 중·고등학생이 봉사활동을 신청해 수거 활동을 펼쳤다.

"와~ 제법인데"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버들초등학교에서 설맞이 사랑의 만두 빚기 행복나눔 행사 에서 학생들이 직접 만두를 빚고 있다. 이날 빚은 만두와 떡국 떡, 생필품들도 함께 도봉구 인근 사회복지시설 11곳과 독거노인 240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건보공단 담배소송 강행

"이사회 보고만 해라" 복지부 신중 주문에도 오늘 의결 안건 상정키로

건강보험공단이 관리 감독 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한 흡연 피해 손해배상 요구 소송을 강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 측은 23일 "예정대로 24일 열리는 이사회에 담배 소송 실행을 위한 최종 단계인 의결 안건으로 올릴 것이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이사회의 논의 결과 재적 이사 과반수가 찬성하게 되면 공단은 언제든지 담배 소송에 공식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된다. 소송 방법이나 대상, 피해 주장 범위, 시기 등은 이사회가 공단 측에 위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공단 이사회 구성은 김종대 이사장과 상임이사 5명, 감사 1명, 노동단체·사용자단체·시민단체·소비자단체·농어업인단체·노인단체 인사 6명,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안전행정부 인사 3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건보공단의 상급 기관인 보건복지부는 공단 측과 이견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 이동욱 건강보험정책 국장은 23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건보공단의 이사회에서 담배 소송 안건을 '의결 사안'이 아닌 '보고 사안'으로 보고하라고 공단에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24일 이사회에서는 일단 담배 소송에 나서겠다는 '보고'만 먼저 하고 나중에 구체적 소송 관련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협의를 거쳐 다시 임시 이사회를 열어서 의결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보공단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실제로 담배 소송에 나서면 2010년도 한 해 '게임 중 소세포암'과 관련해 건보공단이 지급한 432억 원을 돌려받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윤희기자 yuni@metroseoul.co.kr

실적 욕심에 눈 먼 경찰

음란물 유포 미성년자녀 부모로 피의자 바꿔치기

음란물 유포로 적발된 미성년 자녀의 앞날을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을 악용해 피의자를 바꿔치기한 음란물 단속 경찰관이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동부지검은 23일 인터넷 아동음란물 유포사건을 수사하면서 미성년 자녀 대신 부모가 진범인 것처럼 피의자를 바꿔치기한 최모(45)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경위는 지난해 5~9월 아동음란물 유포사건을 수사하면서 인터넷에 음란물을 올린 자녀 대신 부모를 진범으로 바꿔 총 13회에 걸쳐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결과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경위는 같은 기간 피의자 신문조서상 참여하지 않은 경찰관의 서명과 기명을 총 12차례 임의로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경위는 음란물 유포 단속 실적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온다예기자

서울 외국인관광객 지난해 1000만명 돌파 23일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서울관광 질적 내실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날 서울 명동거리에서 외국인들이 관광 안내를 받고 있다. /뉴시스

남해 바닷속에서 건져올린 보물들 23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진도 명량대첩로해역 수중 발굴조사 성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나선화 문화재청장이 요고 등 발굴 유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난해 전남 진도군 군내면 명량대첩로 앞바다에서 삼국시대 토기 등 보물급 유물 500여 점이 발굴됐다. /연합뉴스

이번엔 사기! 바람잘 날 없는 국민은행

전·현직 직원 9명이 공모해 주택채권 위조 110억 빼돌려

국민주택채권을 위조해 고객 돈을 빼돌린 국민은행 직원 2명이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3일 국민주택채권을 위조해 110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전 국민은행 직원 박모(42)씨와 진모(3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인 직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본점 채권 담당자였던 박씨는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다른 직원 7명과 공모해 상환 만기 소멸시효가 임박한 국민주택채권을 위조, 영업점 직원인 진씨 등의 도움을 받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현금 111억6000만원으로 바꿔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비서실 감찰반 또는 각 지점 소속이었던 나머지 7명은 박씨의 지시로 위조 채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채권 2451건에 대해 현금을 내줬다. 일부는 이미 고객이 찾아간 채권의 일련번호를 다시 입력하는 수법으로 이중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다예기자

내달 중순 한차례 한파

다음 달 중순에는 평년보다 다소 추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23일 발표한 '1·3개월 날씨 전망' 자료에서 다음 달에는 기온 변동 폭이 클 것으로 예측했다.

다음달 상순에는 기온은 평년(-4~4도)보다 높고, 강수량은 평년(3~14㎜)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됐다.

중순에는 기온이 평년보다 떨어지겠지만 나머지 기간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순에는 춥고 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기온은 평년(-2~5도)보다 낮고 강수량은 평년(7~25㎜)보다 적겠다.

하순부터는 기온 변화가 클 것으로 관측됐다.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전망이다.

3월에는 날씨의 변화가 클 것으로 예측됐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4월은 쌀쌀한 날씨를 보일 때가 있을 것으로 관측됐다. /온다예기자

방송대 '탈북학생예비대학' 오늘 수료식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24일 오후 2시 방송대학TV 4층 스튜디오에서 프라임칼리지 '탈북학생예비대학 과정' 수료식을 개최한다.

이번에 수료하는 4기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지난 12월까지 45일 동안 수업을 진행해 55명이 수료하게 됐다.

탈북학생예비대학과정은 대학 입학을 앞둔 탈북 학생들에게 대학 생활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 대학 생활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사전에 준비해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무료 프로그램이다.

'우체국예금 서포터즈' 모집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청장 김기덕)은 '우체국예금 4기 서포터즈'를 다음달 5일까지 모집한다.

서포터즈는 3월부터 10월까지 블로그, 트위터 등을 통해 우체국 예금에 대한 서비스와 브랜드를 알리고,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메신저로 활동하게 된다.

모집 대상은 온·오프라인 활동이 가능한 국내 대학 재학 중인 대학생이며 10명을 선발한다.

metro Mexico

nia Del Valle, cu
viones no tripula

metro Sweden

utkastad från innekrog

여성 폭행하다 술집서 쫓겨난 국회의원

스웨덴 극우정당 '스웨덴민주당' 소속 켄트 에케로스 의원이 술집에서 40분 만에 쫓겨났다. 술집 측에서는 그가 여자 손님에게 폭행을 가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반면 에케로스는 자신이 스웨덴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술집 측은 "에케로스는 여자 손님 한 명을 극도로 경멸하는 식으로 괴롭혔다. 그를 더 이상 받아줄 수 없었다. 어떠한 경우든 손님의 안전은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metro France

Le « robot élève » débarque sur les bancs du lycée

고교 교실에 로봇 학생 강의 생중계

프랑스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 '로봇 학생'이 나타나 주목받았다. 지난 20일부터 리옹의 한 고등학교에서 로봇이 학생 자격으로 강의를 듣기 시작했다. 이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 로봇은 장애 학생이나 결석한 학생들을 위해 수업을 생중계하는 역할을 맡았다. 로봇과 함께하는 수업은 유럽 최초인 동시에 세계 최초다. 앞으로 2년간 리옹 인근의 고등학교 세 곳에서 시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당 320만원 '초저가 드론'

멕시코 '무인항공기 대부' 직접 부품 만들고 조립해 제작비 대폭 절감…"인공위성 만들고 싶어"

멕시코시티를 가득 메운 시위대 머리 위로 조그마한 물체가 떠올랐다. 이 요상한 비행기는 카메라로 시위대를 감시하고 사진을 찍었다. 시위대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사람은 바로 페드로 미타부에나(사진). 그는 멕시코인으로는 처음이자 유일한 민간 드론(무인항공기) 개발자다. 메트로 멕시코시티가 최근 그를 만났다.

-언제 처음 드론에 관심을 갖게 됐나

어린 시절 아버지가 종종 나를 데리고 산타 루시아에 있는 공군 기지에 데려갔다. 기지에서 뜨고 내리는 전투기를 많이 봤다. 그때부터 직접 소유할 수 있는 비행체에 흥미를 느껴 3년 전부터 직접 만들기 시작했다.

-부품은 어디서 구하나

멕시코에서 모든 부품을 구하기는 힘들다. 주로 미국이나 독일의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다. 그밖에 기타 부품은 내가 직접 만들어 조립까지 한다. 드론에 있는 카메라도 내가 직접 달았다.

-제작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

다모컨과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기계가 특히 비싸다. 한 대 제작하는 데 3000달러(약 320만원) 정도 필요하다.

-언제 드론을 사용하나

현재는 항공사진을 찍을 때만 드론을 띄운다. 하지만 구조 작업에도 참가하고 싶다. 아직 당국으로부터 구조용 드론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했다. 드론이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나를 통해 비싼 돈 들여서 외국에서 사오지 않고 멕시코도 드론을 자체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또 다른 희망 사항은 없나

사실 요즘에는 인공위성을 직접 제작하고 있다. 집에서 직접 사진을 찍거나 비디오를 녹화해 우주로 보내고 싶다. 투자자만 나타나면 인공위성을 금방 완성할 수 있을 것 같다. /마구스틴 엘리스고 기자·정리=조선미기자

metro Russia

Российский студент судится с сыщиками

미국인 1억 명 카드거래 내역 러소년이 해킹

"미국인 1억 명의 신용카드 거래 내역을 러시아 소년이 해킹했다."

최근 미국의 컴퓨터 범죄 정보기업 인텔크롤러가 18세 러시아 소년 세르게이 타라소프를 결제 판매관리시스템(POS) 해킹 및 악성 프로그램 제작,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특히 회사 측이 소년이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고객들의 지불 데이터를 훔쳤고, 미국 내 피해자 수가 1억명이 넘는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보안전문가들은 수작을 통해 해커가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니즈니노브고로드를 중심으로 활동해 왔고, 작년에 시작된 악성코드 '칸득사'가 블랙 POS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인텔크롤러는 노보시비르스크에 살고 있는 타라소프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다. 하지만 타라소프는 "나는 컴퓨과 운동을 좋아하는 평범한 학생이며 컴퓨터를 잘 다루지도 못한다. 누가 악성 프로그램을 만들었는지 반드시 밝혀내겠다"며 해킹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검찰 조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며 "인텔크롤러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고 합당한 피해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인텔크롤러는 해커가 직접 미국 쇼핑몰의 고객들을 공격한 것은 아니고 악성 프로그램을 브로커에게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안전문가 마크 스보비는 "이 같은 현상은 해킹 시장에서는 흔한 사례"라며 "해커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브로커에게 팔면 제2의 해커가 이를 다시 악성코드로 변환시켜 유포한다"고 설명했다. /스베트슬라브 타타렌코 기자·정리=조선미기자

앞으로 스마트폰 기본탑재 앱 삭제 가능

앞으로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된 앱 삭제가 가능해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 미리 설치되는 선탑재 앱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선탑재 앱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스마트폰 하드웨어의 고유한 기능, 기술 구현이나 운영체제(OS) 설치 운용에 필요한 앱은 필수 앱으로, 그 밖의 앱은 선택 앱으로 분류해 이용자에게 선택 앱에 대한 삭제 권한이 부여된다.

통신사의 경우 그동안 각사별로 16~25개의 삭제 불가능한 앱을 설치해왔으나 앞으로 고객센터, 앱스토어, 근거리무선통신(NFC), 와이파이 접속 등 4개 필수 앱을 제외한 나머지 앱(12~21개)에 대한 삭제가 가능해진다.

이번 선탑재 앱에 대한 삭제 기능 구현은 각 제조사별 생산공정 변경을 거쳐 올 4월부터 출시되는 스마트폰 모델(갤럭시S4 후속작 등)부터 적용된다. /이재영기자 ljy0403@

market index <23일>

코스피	코스닥	금리	환율
1947.59 (-22.83)	522.72 (-0.35)	2.90 (-0.02)	1075.00 (+8.00)

'정보유출 공포' 노린 신종해킹 기승

문서에 암호 걸어 돈 요구하는 '랜섬웨어'부터 이체계좌를 대포계좌로 바꾸는 수법까지 등장

사상 최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공포 분위기를 노린 신종 해킹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보안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생명보험사, 증권사 등 8개 금융사에 설치된 PC 20여 대에서 랜섬웨어인 크립토로커(cryptolocker)가 동시에 발견돼 비상이 걸렸다. 랜섬웨어는 컴퓨터 문서 자료에 암호를 걸어놓고 이를 인질 삼아 돈을 요구하는 악성코드다. 이날 랜섬웨어에 감염된 PC에선 '개인 파일이 암호화됐다'는 문구와 함께 암호를 풀려면 400달러나 400유로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온라인 가상화폐)을 3일 안에 지급해야 한다는 협박 메시지가 화면에 떴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에서는 랜섬웨어에 대한 피해 사례가 많지 않았다"며 "전용 백신이 존재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크립토로커는 신종 랜섬웨어라 일일이 수작업해 치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터넷뱅킹 시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를 빼내지 않고도 이체계좌 등의 정보를 바꿔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채는 신종 수법도 등장했다.

이날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신종 메모리 해킹 방식으로 피해자 81명의 통장에서 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중국 동포 김모(26)씨 등 2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까지 알려진 인터넷뱅킹 해킹과 차원이 다른 범죄 수법을 이용했다.

미리 유포한 악성코드에 인터넷뱅킹의 이체 계좌가 자신들이 확보한 대포통장 계좌로 바뀌도록 미리 설정해 피해자들은 엉뚱한 계좌로 돈을 보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한 것이다. 범죄 대상이 된 은행은 농협과 신한은행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신종 해킹 수법들 역시 윈도나 인터넷 브라우저의 최신 보안 패치로 업데이트하고 수상한 웹페이지 방문은 자제하는 등 기본 보안 수칙에 충실하면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며 "PC나 e메일에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사진, 비밀번호 등은 저장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금소원 독립 화두로

동양그룹 기업어음(CP) 사태와 카드정보 유출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면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의 신설 및 독립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번 카드 대란을 계기로 금소원을 만들어 소비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고 상충 관계로 반대 의견을 보였던 금융감독원에서도 금소원에 대한 입장을 다시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외환위기에서부터 동양사태 등 다양한 금융 사고로 인해 소비자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해오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부터 부실 금융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반복적인 피해를 막고 안정적 금융시장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세부 내용으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기로 한 바 있다.

주요 골자는 금융감독원에 소속돼 있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 독립해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신설하고 금감원은 건전성 감독의 역할을, 금소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각각 전담하게 하는 것이다.

문제는 금감원이 금소원의 독립을 탐탁잖게 여기고 있다는 점이다. 금소원이 분리되면 금감원의 역할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금감원 측은 금소원이 분리되더라도 업무 비중은 30% 정도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청환기자 jsy@

KOSPI 1,947.59 ▼22.83(-1.16%)

코스피 22포인트 넘게 하락 … 무너진 1950 코스피가 나흘 만에 하락하면서 1950선이 무너졌다. 23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22.83포인트(1.16%) 내린 1947.59로 장을 마감했다. /연합뉴스

금융사 맘대로 '대출 만기·금리' 못 바꾼다

공정위, 불공정한 여신거래 약관 시정 조치

채무자들의 신용 상태에 따라 대출 만기나 금리를 입맛대로 변경해온 여신전문금융사의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고객이 돈을 빌리면서 맡긴 담보를 금융사 임의로 처분하던 계약 관행 역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와 증권사 등 금융투자사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이 같은 불공정한 조항을 발견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채무자의 신용 상태 변동 시 여신 한도, 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는 여신금융사의 표준약관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사전에 내용을 특정하지 않은 '신용 상태 변동' 조건만으로 금융사가 재량적 판단에 따라 여신거래 조건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해 담보물을 처분할 때 경매(법정 처분)보다 매매(사적 처분)가 채무자에게 더 불리할 수 있는데도 포괄적 사전 동의를 근거로 처분 방법과 시기를 금융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담보를 추가로 요구할 때도 담보가치 하락의 귀책 사유나 담보가치 부족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금융사가 자의적 판단으로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불공정 조항으로 지목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 약관은 용어가 어렵고 이해가 쉽지 않아 피해 발생 우려가 많다"며 "불공정 약관 심사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국명기자

뉴스 & 뉴스

청마의 해 새단장한 설 상품권 23일 현대백화점 신촌점에서 한복을 차려입은 직원들이 청마 그림이 새겨진 설 상품권 패키지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작년 실질GDP 2.8% 성장

● 지난해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년 대비 2.8%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 GDP는 3분기보다 0.9% 성장했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년 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GDP 성장률은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2012년 1.7%에서 지난해 1.9%로 늘었고, 설비투자 증가율은 -1.9%에서 -1.5%로 감소폭이 축소됐지만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했다. /김민지기자

해외 인재 유치 50% 확대

● 정부가 해외 인재 유치 규모를 2017년까지 50% 가량 늘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3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해외 우수 인재 유치 활용 방안'을 보고하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방안을 통해 2012년 2만4855명인 해외 인재 유치 규모를 2017년 연구교육형 7500명, 기업활동형 2만7500명, 미래창조형 1650명 등 총 3만6650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재영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 142
TEL. 02)721-9800, FAX 02)739-1551

발행인·회장	남규호
사장·편집인	김종혁
편집국장	조인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51 3
부산광고문의	051)959-2100
독자센터	02)721-9871

2005년 5월 3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 00189

중소기업 역사가 한눈에 23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 개관한 중소기업역사관에서 관람객들이 중소기업의 발전사를 보여주는 전시물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거침없는 달러 강세장

28~29일 美FOMC서 양적완화 추가 축소 전망에 달러당 1070원 돌파

미국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의 영향으로 달러 강세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6.5원 오른 1073.9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 거래일보다 0.9원 오른 1068.3원에 출발하고서 1070원 선을 돌파한 뒤 상승폭을 계속 확대했다.

글로벌 외환시장에서도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미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104.48엔에 거래되며 전 거래일 104.34엔보다 상승했다. 엔화 가치가 하락하고 달러 가치는 오른 것이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ICE달러 인덱스는 이날 81.165로 전 거래일의 81.102보다 상승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지난해 12월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테이퍼링을 단행하기로 발표한 뒤, 오는 28~29일 열리는 1월 FOMC 회의에서 양적완화를 100억 달러씩 추가 축소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란 예상에 달러 강세가 나타났다.

증시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 경기가 회복 국면에 진입하면서 이 같은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홍석찬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지난 12월 고용지표가 부진하게 나타났으나 이후 발표된 경제지표들은 양호한 수치를 보였다"며 "이달 FOMC 등 대외적 요인들로 글로벌 달러 강세장이 연출되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도 계속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중호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난해 10월부터 달러 강세장이 재개됐다고 볼 수 있다"며 "미국은 경기 회복으로 올 하반기 금리 인상 논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올해 원·달러 환율은 1070~1090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관측됐다.

신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이 연간 평균 1080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며 1100원 선까지 오르는 시점도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홍 연구원은 "올해 원·달러 환율이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지만 지난해에 비해 하락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단기적으로는 1070원 중반에서 소폭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추정했다.

미국과 달리 유럽과 일본은 양적완화 정책을 지속하는 것도 유로, 엔화 등 주요 통화 대비 달러가 강세를 지속할 요인으로 지적됐다.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오래된 화장품 기발한 재활용

권순이 주부 경제학

영양크림은 헤어팩으로 립스틱+에센스 섞어 립밤

집 안을 잘 살펴보면 잠자는 생활용품이 의외로 많다. 특히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딱딱하게 굳어 못 쓰는 화장품은 정말이지 처치 곤란이다. 이런 애물단지에도 회소식이 있다. 우선 잘 안 쓰고, 방에 굴러다니는 크림 타입의 제품 한두 개쯤은 다 갖고 있을 것이다. 이 크림은 머리를 감고 난 뒤 머리 끝 쪽에 듬뿍 발라 영양팩으로 사용하면 좋다. 유행이 지났거나 뭉그러진 립스틱은 에센스를 골고루 섞어 촉촉한 컬러의 립밤으로 만들어보자. 립스틱은 덜어 에센스를 넣고 잘 섞어만 주면 끝! 에센스 양을 줄이면 틴트처럼도 사용할 수 있다.

오래된 향수는 사용하기가 꽤히 찝찝하다. 다림질할 때 다리미에 미리 뿌려놓고 셔츠나 스커트를 다리면 열이 퍼지면서 은은하게 향이 스며들게 된다. 헤어 브러시에 몇 방울 뿌리면 머리카락이 찰랑일 때마다 좋은 향이 난다. 다 사용한 마스카라의 솔은 깨끗하게 씻어서 눈썹 정리용으로 사용하면 유용하다. 속눈썹 빗질 해줄 때도 좋고, 여행 갈 때 파우치에 넣고 다니기도 편리하다. 굳은 마스카라는 유화액을 넣어주거나 스킨, 에센스, 오일을 한두 방울 넣어주면 해결된다.

/리드지기자 [illegible]

강남전세 빼서 분양 받을까

서울 진입 편한 수도권 신규 단지들 주목

입주 물량 감소 및 재건축 이주에 따른 영향으로 올해 서울 강남지역 전세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강남권 전셋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강남 인근 지역 신규 분양 단지가 주목받고 있다.

23일 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1월 현재 서울 강남구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3.3㎡당 평균 전셋값은 1502만원이다. 이어 서초구가 1532만원, 송파구가 1303만원이다.

전셋값이 웬만한 지역의 아파트 값을 뛰어넘지만 이마저도 물건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해 강남 3구 및 강동구에서 예정된 재건축 이주 수요만 2만 가구에 달하지만 입주 예정 물량은 9376가구에 그치기 때문이다.

권일 닥터아파트 팀장은 "강남 전셋값 상승이 불가피한 가운데, 강남과의 접근성은 좋으면서 분양가는 저렴한 수도권 신규 분양 아파트로 세입자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3월 포스코건설은 구리시 갈매보금자리지구 C-2블록에 전용면적 69~84㎡, 총 857가구 규모의 '갈매 더샵 나인힐스'를 분양할 예정이다. 구리갈매지구는 2차 보금자리지구 가운데 서울과 가장 인접한 곳이다.

이어 4월에는 하남시 미사동 미사강변도시 A10블록에 '미사강변도시 더샵 리버포레'가 공급된다. 전체 883가구, 전용면적 89~112㎡로 구성됐다. 강동구와 접하고 있으며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선이 하남 도심으로 연결(2018년 완공)될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9월 안양시 현영동 일대 안양덕천지구를 재개발한 '안양 덕천 래미안'을 선보인다. 전용면적 59~139㎡, 총 4250가구의 매머드급 단지다. 외곽순환고속도로, 관악로, 과천대로, 국철1호선 안양역 등의 교통망을 갖췄다.

/서예진기자 [illegible]

롯데백화점 "설맞이 이심전심 윷놀이" 이벤트 23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모델들이 '설맞이 이심전심 윷놀이' 이벤트를 홍보하고 있다. 윷놀이 이벤트는 24일부터 28일까지 2명이 순서대로 화면을 터치해 같은 윷이 나오면 이색 세뱃돈을 증정하는 방식으로 하루 2번씩으로 한정된다. /연합뉴스

생보사 24시간 내 보험금 지급률 80%

생명보험사들의 보험사고 10건 중 8건은 24시간 내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 삼성생명 등은 24시간 내 사고보험금 지급률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 가입 고객들은 보다 신속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민원을 줄어들고 있다.

생보사들은 지난해 1월부터 사고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보험금 심사 기준과 지급 시스템, 접수 방법의 편의성 등을 개선해 고객들이 보다 빠르고 쉽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한 것.

그 결과 지난해 초반 50% 정도였던 대형 생보사의 24시간 내 사고보험금 지급률은 지난해 말 80% 수준까지 큰 폭으로 상승했다.

교보생명은 지난해부터 전국 7곳에 지역보험심사센터를 설치하고 보험금 심사 전담 인력 60여 명을 배치했다. 현장에서 바로 심사하고 심사가 끝나면 별도 절차 없이 보험금 지급 전담 사원이 고객 계좌에 보험금을 입금해준다.

보험금 접수부터 송금까지 지급 프로세스를 대폭 개선하고 보험금 접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자산운용사(FP)방문 접수, 인터넷이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한 보험금 접수도 늘렸다.

삼성생명은 전담 상담원을 배치하고 컨설턴트의 '방문 접수 서비스'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고객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사고 등 역경에 처했을 때 보장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라며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함으로써 고객과의 약속을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원기자 [illegible]

‘상여금’ 통상임금 맞나 안맞나

대법 판결에도 애매… 소급 등 임금협상 이슈로

정부가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이 있기 전 노사가 맺은 임금협상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또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통상임금 소급 적용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어 올해 임금협상의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3일 방하남 장관 주재로 열린 '전국 근로개선 지도과장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통상임금노사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에 앞서 새로가 3년 전 임금채권의 경우 신의칙 문제를 근거로 사실상 소급 청구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판결 이후에는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판결일 이후 정기적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시기인 올해 임금협상 전까지 신의칙이 적용돼 소급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기업이 판결 이후 새로운 임금체계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판결 취지는 새로 임금 조정을 하기 전까지 신의칙이 유지된다고 보는 게 맞다며 법원이 신의칙을 인정한 취지에 비춰볼 때 당초 합의 기간 만료 전에 노사가 소모적인 소송으로 다투기보다 원만하게 타결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대법원 판결에서 명절귀향비, 휴가비 등이 특정 시점에 근무하는 재직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됐는데 정기상여금이라도 퇴직자에게 근무일 또는 근무일에 따라 지급하는 게 아니면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지도지침을 현장에 적용하며 복잡한 임금 구성을 단순화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김태균기자 ksg@metroseoul.co.kr

네이버 뉴스스탠드 개인 맞춤기능 강화

네이버 뉴스스탠드가 개인 맞춤형으로 최적화된다.

네이버는 이용자의 뉴스 접근성을 높이고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뉴스스탠드 부분 개편안을 23일 발표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이용자가 뉴스스탠드에서 '마이(MY)뉴스'를 설정하면 해당 언론사의 주요 기사가 네이버 메인 뉴스스탠드 공간에 노출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뉴스스탠드 기사를 보기 위해서는 언론사 이미지를 클릭한 이후 뷰어로 이동해야 개별 기사로 접근할 수 있었다. 이번 개편으로 MY뉴스를 설정한 이용자들은 메인에서 바로 주요 기사들을 볼 수 있어 뉴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언론사에서 직접 편집한 기사를 비교해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개편은 로그인 쿠키 방식과 상관없이 MY뉴스를 설정한 이용자에게 노출되며 설정하지 않는 이용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주요 언론사의 언론사 아이콘이 랜덤 노출된다.

다음달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박성훈기자 zen@

“한화, 태양광 투자 지속”

다보스 포럼 찾은 김동관 실장 강조

한화그룹의 경영 공백을 대신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김동관 한화큐셀 전략마케팅실장이 다보스 포럼을 찾았다. 김 대표는 김승연 회장의 장남으로 스위스 다보스에서 22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제44차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다보스 포럼)'에서 미래 성장 동력 찾기와 세계적인 정·재계 인사들과 교류에 나선 것.

김 실장은 특히 김승연 회장이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삼형제 중 유일하게 경영에 참여해 사실상 한화그룹의 후계자라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이번 다보스 방문에도 차남규 한화생명 대표, 방한홍 한화케미칼 대표, 김희철 한화큐셀 대표, 김민정 한화갤러리아 상무 등 주요 계열사 임원이 함께해 무게를 더하고 있다.

김 실장이 우선 자신이 주도하는 태양광 사업 홍보와 함께 태양광 사업의 미래 가능성을 알리는 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도 김 실장은 김희철 한화큐셀 대표와 함께했다. 김 실장은 "한화그룹은 태양광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믿음과 태양광을 통해 '인류의 미래에 이바지하겠다'는 김승연 회장의 확고한 철학에 따라 에너지 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이라며 특히 "단순한 태양광 관련 제조뿐 아니라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면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전기에너지 생산에서 태양광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또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글로벌 금융·에너지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잇따라 만남을 하는 등 전 세계 정·재계 인사들과 친분을 구축하며 폭넓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 실장은 지난 2010년 처음 다보스 포럼에 참가하며 글로벌 무대에 데뷔한 이후 5년 연속 다보스 포럼을 찾아 세계경제의 흐름을 파악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을 배우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다보스 포럼이 비즈니스·학문·정치 등 각 분야에서 성공한 40세 미만 글로벌 리더 모임인 영글로벌리더로 선정되며 차세대 경제 지도자로서 입지도 넓히고 있다. /김태균기자

다보스 포럼 현장의 한화그룹 사무실에서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김희철 한화큐셀 대표와 김동관(오른쪽) 한화큐셀 전략마케팅실장. /한화 제공

집 안에 층계 달아볼까 2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하우징브랜드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실내 설치 가능한 층계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포르쉐 코리아 “올해 목표 2600대”

포르쉐 코리아가 23일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포르쉐 코리아의 김근탁 대표는 "2014년 출범을 맞아 가장 열망하는 스포츠카로서의 브랜드 이미지 강화, 시장 확대,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 강화 등 세 가지 목표를 세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부품 수급과 정비사 교육, 전시장 확대 등을 통해 포르쉐의 달라진 모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르쉐 코리아는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포르쉐 월드 로드쇼'를 열고 포르쉐 골프컵, 카레라 챌린지 코리아 이벤트 등을 통해 브랜드 로열티를 높일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다양한 신모델들도 선보인다. 카이엔 플래티넘 에디션, 911 GT3, 파나메라 터보 S, 터보 S 이그제큐티브, 파나메라 S E-하이브리드와 함께 918 스파이더, 911 타르가 4·4S를 비롯해 마칸 터보, 마칸 S 디젤, 마칸 S가 출시된다. 2014년 판매 목표는 2600대다.

AS 분야도 강화한다. 포르쉐 코리아는 2013년 총 7개의 전시장, 6개의 서비스센터였던 딜러 네트워크를 2014년에 총 9개의 전시장, 8개의 서비스센터로 확장한다. 또한 하루 수리 가능한 차량 대수를 약 50% 이상 늘리고, 한국 내 부품 보유량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태균기자 ferrari6@

은행·카드·보험·증권 전 금융사 보안 점검

금융 당국이 은행, 카드, 보험, 증권 등 모든 금융사를 대상으로 자체 보안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카드사들 외 다른 금융권의 정보유출 실태 파악을 위해 보안 점검 체크리스트를 모든 금융사에 보내 세밀한 자체 점검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체크리스트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와 더불어 이번 정보 유출을 일으킨 위탁 용역업체 관리 실태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금융 당국은 다음주까지 점검 실태를 받아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금융사에는 현장 점검과 경영진 면담을 통해 긴급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모든 금융사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보안 점검은 외부 직원에 의한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점검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박상헌기자 hsw@

대기업 60% 스펙 안보는 채용 검토

대기업 10곳 중 6곳이 '스펙'을 배제한 열린 채용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매출 500대 기업 중 조사에 참여한 145개 기업을 대상으로 열린 채용 전망을 조사한 결과 50.3%가 열린 채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 채용을 검토한다는 대답은 대기업이 61.4%로 가장 많았고 중견기업(34%), 중소기업(30%)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63.6%), 정보통신(60%), 식음료(60%), 기계·철강·조선(57.1%), 유통(53.3%), 금융(52.9%) 업종이 열린 채용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열린 채용 도입 방식도 다양하다. 한국남동발전은 기존 서류전형 대신 4주 동안의 미션수행으로 1차 합격자를 선정하고 있고, 현대자동차는 2011년 이후 자기 PR로 서류전형을 대신하고 있다.

인크루트 관계자는 "각 업종마다 특성과 요구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채용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힘든 실정"이라며 "하지만 '열린 채용'의 사례를 신속 평가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해 전파한다면 다양한 업종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kmlee@

코레일 "용산땅 돌려달라"

개발사업 시행사 드림허브 상대 나머지 61% 소유권 이전 소송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무산을 둘러싸고 땅 주인과 사업 시행자 간 법적 다툼이 막을 올렸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잔여 부지를 되찾기 위해 드림허브금융투자주식회사(드림허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토지소유권 이전 소송을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코레일은 전체 사업부지 가운데 39%는 대주단에 토지 대금 2조4000억원을 반환하고 찾아왔지만 나머지 61%인 21만7583㎡ 규모의 토지 소유권은 이전받지 못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계약해지 귀책사유가 드림허브에 있다고 판단, 승소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환매특약 등기 등 이중 담보 장치를 마련해뒀기 때문에 잔여 토지의 소유권도 단기간에 이전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롯데관광개발 회생채권조사확정 결정문에서 용산사업이 무산된 데는 코레일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지적했다.

코레일이 랜드마크 빌딩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드림허브가 2500억원의 유상증자(또는 전환사채 발행)를 위해 수차례 이사회를 개최했으나 코레일이 추천한 이사 3명이 이를 일관되게 반대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코레일은 "전환사채 2500억원을 발행하지 못한 것은 지난해 3월까지 드림허브가 기한 내 발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책임을 돌렸다.

이어 "드림허브가 사공권 공모를 통한 전환사채 발행으로 변경해줄 것으로 요청했지만 이는 사업협약 취지에 맞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후 2차례에 걸쳐 전환사채 발행이 있었지만 코레일을 제외한 민간 출자사 전원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서선희기자 ssh@metroseoul.co.kr

80세도 무심사 가입되는 암보험

라이나생명보험은 고령자 대상 암보험인 무배당 실버암보험의 가입연령을 80세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암 발생률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암 발생자는 인구 10만명당 남자 412.4명, 여자 397.7명으로 2009년 대비 4% 증가했다. 특히 75~79세의 암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약 1,806명으로 전체 평균인 405.1명과 비교했을 때 4배가 넘는 높은 수치다.

이 상품은 고령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고혈압, 골다공증 같은 노인성 질환에 대한 무심사를 적용해 고령자들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간편 심사 상품으로 고안됐다.

무배당 실버암보험은 61세에서 80세까지의 고령자들이 가입 가능하도록 고안된 10년 만기 암보험 상품으로, 10년 단위로 갱신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위암, 대장암, 간암 등 일반 암(유방암,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받았을 때 최초 1회에 한해 암치료보험금 최대 2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 유방암 또는 전립선암으로 진단 확정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400만원을 보장받는다.

특히 이 상품은 특약 가입을 통해 특정 암(위암, 대장암, 폐암) 또는 고액 암(백혈병, 뇌암, 골수암)에 대해서 추가 보장받을 수 있어 든든하게 대비할 수 있다. /박성훈기자 psw@

"퀴즈 풀면 주유권 드려요" LG유플러스는 설 연휴를 맞아 21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한 달간 'U+ Navi LTE' 안에서 제공되는 퀴즈를 푸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2만원 상당의 GS칼텍스 1만원 주유권, 외화예매권, 모바일 주유권 등 총 1055명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U+ Navi LTE 완실 거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제공

KT '낙하산 부대' 짐 쌀까

27일 주총서 황창규 회장 취임… 물갈이 인사 전망

황창규 KT 회장 후보가 오는 27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정식 취임한다.

새 최고경영자(CEO) 취임을 일주일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KT 내부 구성원들은 마음을 졸이고 있다. 언론을 통해 대대적 조직정비가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혹시나 칼바람에 자신도 다칠까 우려하는 상황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황 후보자가 공식 취임하면 대규모의 물갈이는 필수 불가결하지 않겠느냐는 추측이 팽배한 상황이다. 이석채 KT 전 회장 시절부터 낙하산 인사 및 비리의 온상이 된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 낙하산 인사 척결이기 때문이다.

KT 내부에서도 이 같은 낙하산 인사 척결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는 분위기다. 제대로 된 조직 혁신이 이뤄져야 현재의 경영 위기를 타개하고 재도약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이 전 회장 측근 일부 인사들의 퇴거설도 나돌고 있다. ○ 사장은 물러나고 ○ 전 사장은 복귀하는 등 일부 임원 인사들의 퇴직과 복직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KT새노조는 "이 전 회장의 경영 재앙 중 하나가 낙하산 인사였다"며 "정치인, 법조인, 전 언론인, 심지어 출판 도청 관련자까지 통신회사에 끌어들였는데 이들의 정리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영기자 ljy@

정철길 SK C&C 사장 中 방문 올해 글로벌 현장경영 시동

정철길 SK C&C 사장이 올해 중국을 시작으로 글로벌 현장 경영에 시동을 걸었다.

정 사장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과 선전을 방문했다.

앞서 정 사장은 올 초 신년교례회(시무식)에서 "글로벌과 비IT 분야의 신성장 사업은 직접 챙기며 실질적 성과를 주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사장은 이번 중국 방문을 통해 중국 법인 구성원들과 함께 중국 사업 현황과 시장 동향, 신규 사업 추진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SK C&C 관계자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글로벌과 비IT 분야에서 지속적인 투자 및 사업기회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최고경영자(CEO)가 글로벌과 비IT 사업을 진두지휘함에 따라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영기자

화정역 1분 호텔형 힐링하우스

전용률 높고 풀옵션 제공 입주 전 분양 마감 기대

국내 1~2인 가구가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가운데, 이들 수요를 겨냥한 맞춤형 수익형 부동산 '힐링하우스'가 공급돼 눈길을 끈다.

힐링하우스는 서울지하철 3호선 화정역 도보 1분 거리의 로데오거리 중심에 위치한 싱글하우스다.

로데오거리에는 롯데마트, 이마트, 세이브존, CGV, 덕양구청, 정부민원종합청사, 명지병원 등의 생활편의시설이 대거 위치해 있다. 또 화정터미널, 광역버스정류장이 바로 앞이라 서울역, 여의도, 영등포, 신촌 등지로 출퇴근이 가능하다.

분양 관계자는 "공급에 비해 수요가 넘치는 상권인 데다 교통도 좋아 공실 걱정이 없고, 임대 사업을 하기에 적당해 2실 위주를 앞두고 조기 분양 마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존 고시텔과 차별화한 설계로 전용률을 높였으며 LCD TV, 에어컨, 핫플레이트, 침대, 전자레인지, 빌트인 컴퓨터 책상, 냉장고, 드럼세탁기 등 풀옵션 제공으로 독립적 생활이 가능하다. 특히 변호사가 에스크로우 제도로 자금 관리를 해줘 안정성을 더했다.

문의 1588-5473

"개그맨 출신 약점 역이용"

'이색 경력' 달고 다니는 GSK 박혜숙 팀장 인터뷰

제약회사 영업사원 전업
병원교수 명함 안 받아줘
내 장기 살려서 접근 성공
첫 3년에 성패 달려있어

개그맨 출신 영업사원,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한국 법인의 첫 여성팀장, 펄스(PULSE) 최초의 아시아인 참가자. 늘상 박혜숙 팀장을 설명할 적마다 따라 붙는 이색적인 경력들이다. 당당하고 환한 웃음을 보이며 회사와 모임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박 팀장을 만나 자신감을 갖고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정해인기자 hjuns0404@metroseoul.co.kr

"신인상을 받고 나서 우울증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한 지인이 저에게 영업을 하면 잘할 거 같다며 제약 영업을 해보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직업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우연한 기회에 너무 힘들었던 개그맨 생활을 접고 살기 위해서 전업을 했습니다."

신인상까지 받은 공채 출신 개그맨 박혜숙은 2000년 1월 한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서의 새 인생을 살게된 경위를 설명했다. 하지만 처음 이직을 한 후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개그맨 출신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병원 교수들과 대화가 되지 않을 거란 말을 들었다. 그를 채용했던 상사조차 6개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이라며 1년 안 돼 관두고 말랄 정도였다. 처음부터 신입이 맡기에는 무리인 대형병원들을 배정받았고 교수들은 그의 명함조차 받아주지 않았다.

"이미지는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감을 갖고 그 이미지를 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부단히 노력했지요."

그때부터 박 팀장은 6개월 동안 밤새워가며 공부를 했고 어려운 의학 용어들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익히는 데도 신경 썼다. 또 약점이라 여겼던 개그맨 출신 이미지를 강점으로 바꿔나갔다.

공채 출신 개그맨에서 글락소스미스클라인, GSK 한국법인의 최초 최연소 여성 팀장이 된 박혜숙씨가 자신의 다양한 경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그는 "혹시 저 TV에서 보신 적 없으세요?"라며 교수들에게 접근해 자신의 장기를 살려 재미있는 이야기로 분위기를 바꾼 후 어려다 싶을 때 그동안 밤새 공부한 지식들을 꺼내놨다. 이 과정에서 상담 교수들의 표정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이런 노력 끝에 박 팀장은 8개월 후 첫 랜딩에 성공했다. 그리고 3년 동안 차곡차곡 노하우를 쌓아 GSK로 스카우트돼 2007년 12월에는 GSK 한국법인 최초 최연소 여자팀장이 됐다. 그는 "운이 좋았다"며 웃었지만 그 뒤에는 엄청난 노력이 숨어있었던 것이다.

"3년이면 우순 형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 3년 안에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승리의 맛을 본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편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3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가장 중요하지요."

박 팀장은 이어 또 다른 도전을 시작했다. GSK 한국법인을 알리고 직원들에게 자신감을 일깨워주기 위해 PULSE에 지원한 것이었다. PULSE는 GSK가 2009년부터 비정부기구(NGO)와 연계해 직원을 보내서 직접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하는 봉사 프로그램이다. 박 팀장은 면접 등 복잡한 전형을 통과해 2012년 6월 PULSE 최초의 아시아인으로 아프리카 가나에서 재능 기부 형식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그곳에서 GSK 내부 사회공헌 활동(CSR)을 연결시켰다. 회사 직원들의 성금 1500만 원 가운데 500만원으로 학용품을 구입해 전달했고 1000만원으로는 기숙사를 지어줬다고 한다. 현재는 GSK 회사 내부에 '해피 스마일'이라는 사랑의 온도계를 만들어 올해 안에 100%를 채우겠다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박 팀장은 여전히 국내외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해 처음 방문했던 몽골에서는 학교 짓기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올해도 몽골로 향할 예정이다.

"나를 사랑하라, 준비하라, 실행하라"가 인생 철학이라고 밝힌 그녀는 "자신감을 갖고 충분히 준비해 우조건 실행하면 성공은 따라온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리고 웃어라"는 말을 항상 덧붙여야 해요"라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린 그녀는 인사를 나누고 부지런한 발걸음으로 사무실로 향했다.

'네시나정'으로 당뇨시장 선두 성장"

한국다케다제약 제품 내놔

한국다케다제약이 제2형 당뇨병 치료제 '네시나정'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 회사는 최근 국내 제약업계 최초로 제품을 3D 프로그램으로 설명하는 심포지엄을 열고 당뇨병 치료제 시장에서 업계 선두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제품의 차별화된 장점과 함께 2010년 일본에서 출시되면서 입증된 효과를 환자와 의사들에게 전달하고 심혈관 위험이 높은 중증 심혈관계 질환 환자들에게서도 안전성을 부각시킬 방침이라는 것이다.

회사 측은 네시나정과 함께 이미 발매된 제2형 당뇨병 치료제 '액토스'를 통해 당뇨병 치료제 분야의 명성을 국내에서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네시나정 담당자는 "작년 600억 원의 매출을 올린 DPP-4 억제제 계열의 당뇨병 치료제인 '트라젠타' 만큼의 좋은 성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네시나정은 인슐린 분비는 증가시키고 글루카곤 분비는 감소시켜 혈당을 조절하는 DPP-4 억제제 계열의 당뇨병 치료제다. /정효진기자 scroll@

동화약품, 사랑의 테디베어 특별전 동화약품이 최근 테디베어뮤지엄에서 '사랑의 테디베어 특별 전시'를 개최했다. 후시딘 사랑의 테디베어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전시에서는 동화약품이 후원하고 있는 '홍명보 어린이 축구교실'에서 영감을 얻어 특별 제작된 축구선수 테디베어 '윈디(WINDY)'를 관람할 수 있다. /동화약품 제공

80년 식물 영양소 연구 외길

시크릿 노트

■ 뉴트리라이트 기업 철학

식물 영양소 제품을 담구하던중 우연치 않게 하나의 새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뉴트리라이트 기업 철학이 식물 영양소라는 사실이다. 보통 인류의 건강을 주제로 기업 철학을 세우는 건강기능식품 회사들을 생각하니 새로운 흥미로움에 마음이 끌렸다.

뉴트리라이트는 올해로 80주년을 맞이하는데 중요한 것은 뉴트리라이트 창립 이유가 식물 영양소라는 것이다.

뉴트리라이트 창립자인 칼 렌보그는 1920년대 초 유제품 회사 영업 담당자로 중국에 부임했다. 여기서 그는 고기와 백미를 주로 먹던 부유층에는 각기병이 있었고 채소와 현미가 주식이던 농민에게는 각기병이 적게 발생한다는 점을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이에 그는 음식 속에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충분히 들어있지 않으면 병에 걸린다는 가설을 세웠고 식생활에서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건강 문제가 해결된다고 판단했다. 이후 1927년 은화혁명으로 외국인 보호구역으로 격리된 그는 이곳에서 자신의 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행동을 개시했다.

당시 먹을거리가 부족해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들에게 그는 나뭇잎과 잡초, 갈아놓은 동물의 뼈, 녹슨 철제 못을 끓여 만든 수프와 죽을 먹였고 이들의 체력은 칼 렌보그의 믿음처럼 거짓말같이 회복됐다.

이렇게 자신의 가설에 확신을 가지게 된 그는 우여곡절 끝에 미국으로 돌아왔고 곧바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다. 그는 중국에서 알팔파를 먹던 소들의 건강한 모습을 떠올리며 인간에게도 식물이 좋은 영양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식물을 가공·농축하는 실험에 몰두했다. 또 현재도 뉴트리라이트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알팔파, 파슬리에 대한 연구도 거듭됐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1934년 마침내 그는 북미 최초의 미네랄 제품 개발에 성공했다.

80여 년 전부터 식물 영양소에 몰입해 모든 것을 쏟았던 그가 이제야 세상스럽게 주목을 받는 식물 영양소의 가치를 입증한 것이다. 이후 그의 철학은 아들인 샘 렌보그 박사를 통해 이어졌고 뉴트리라이트는 '믿을 수 있는 원료는 스스로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칼 렌보그의 뜻대로 현재 3개의 농장을 직접 운영하며 유기농법으로 제품에 사용될 식물을 직접 재배하고 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믿을 수 없는 제품도 늘고 있지만 처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80년을 지켜온 뉴트리라이트의 철학은 믿어도 되지 않을까 한다. /송재용기자

뉴스&뉴스

글라드스텐 새 대표 체제

● **한국노바티스**는 1월부로 브라이언 글라드스텐을 신임 대표이사 겸 사장으로 선임했다고 최근 밝혔다. 글라드스텐 사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호주 및 뉴질랜드 노바티스 항암제사업부 총괄 책임자로 활동했다. 글라드스텐 사장은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 중 하나인 한국에 부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국노바티스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체중감량제 '제이메이드정'

● **JW중외신약**이 체중 감량 보조제인 '제이메이드정'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에 들어갔다. 제이메이드정은 천연 식이섬유인 '알긴산'을 주성분으로 하는 다이어트 제품으로 음식물 섭취 감소를 통해 체중 감량을 도와주는 제품이다. JW중외신약은 제이메이드정 외에도 2종의 비만 치료제를 새롭게 출시해 비만 치료제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바이오니아와 암 치료제 개발

●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는 유전자 기술 전문기업인 바이오니아와 유전자 치료제 개발 원천 기반 기술인 '새미알엔에이(SAMiRNA)' 기술을 이용한 난치성 암 치료제 개발과 관련한 공동 연구 계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년 SAMiRNA 기술을 활용한 표적 항암 신약 후보 발굴 공동 연구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추가 계약을 통해 본격적인 난치성 암 치료제를 개발할 방침이다.

쏟아지는 대작 게임…흥행 봄날 맞을까

블리자드·네오위즈·위메이드 등 온라인게임 강호들 새 작품 출시 경쟁

블리자드, 네오위즈게임즈, 위메이드 등 전통의 온라인게임 강호들이 올봄 대작을 잇따라 내놓는다.

대형 온라인게임이 연이어 출시를 앞두고 있어 업계가 술렁이고 있지만 모바일게임이 사실상 시장을 평정한 상태에서 이들 게임이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외산 온라인게임의 간판 블리자드는 '하스스톤'과 '디아블로3: 영혼을 거두는 자'를 선보인다.

'하스스톤'은 블리자드의 첫 온라인 카드 게임이다. 블리자드의 대표 게임 '워크래프트'의 다양한 마법과 무기, 그리고 캐릭터를 기반으로 한 수백 가지의 카드를 조합해 상대와 겨루는 방식이다.

이달 중 공개 서비스를 할 예정이며 이미 베타 테스트에서 이용자들로부터 "플레이가 쉽고 스릴감이 넘친다"는 반응을 얻었다.

'디아블로3: 영혼을 거두는 자'는 '디아블로3'의 새로운 확장팩이다.

기존 다섯 영웅인 야만용사, 악마사냥꾼, 수도사, 부두술사, 마법사와 더불어 새로운 영웅 성전사가 가세한다. 거대한 갑옷을 온몸에 착용한 성전사는 악을 응징하는 정의의 사나이다.

게이머는 무서운 지역들을 탐험하며 전설의 도시 서부원정지에서 괴물들을 물리치는 여정을 한다.

위메이드는 제작 기간 10년, 200여 명의 개발 인력을 투입한 MMORPG '이카루스'를 출시한다.

화려한 그래픽, 탄탄한 스토리를 갖춘 중세 유럽을 배경으로 한 게임으로 '펠로우'라는 일종의 펫 시스템이 특징이다.

다양한 펠로우를 영입하고 육성해야 하며 펠로우를 타고 공중전을 하면서 지상을 공격할 수 있다. 논타깃팅에 가까운 전투 시스템을 도입해 다이내믹한 전투 환경을 구축했다.

네오위즈게임즈의 MMORPG 야심작 '블레스'도 출격을 앞두고 있다.

언리얼3 엔진을 기반으로 한 하큐담고 웅장한 그래픽을 갖춘 신작은 150여 명이 참여한 400억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다.

이들 신작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싸움을 펼쳐야 한다.

할머니들도 즐긴다는 모바일게임은 차치하더라도 점유율이 40%에 이르는 '리그오브레전드'를 비롯해 브라질 월드컵 특수를 맞은 '피파온라인3', 15년 전통을 자랑하는 '리니지' 등 기존 온라인게임들의 존재감이 워낙 크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대작 MMORPG가 오랜만에 경쟁적으로 나오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리스크 또한 역대 최고 수준인 만큼 올 상반기가 지나면 국내 게임 시장의 판도가 확실히 재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올 봄 출격하는 대작 게임들.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하스스톤' '이카루스' '블레스' '디아블로3: 영혼을 거두는 자'

'블소' 시즌2 마족의 침공 본격화

엔씨소프트, 업데이트 시작

엔씨소프트의 블록버스터 MMORPG '블레이드 & 소울'(이하 '블소')이 '시즌2: 지옥도' 업데이트를 시작했다.

블소 시즌2는 2014년 상반기에 전개되는 대규모 업데이트로 새로운 스토리와 던전, 게임 시스템 등 다양한 신규 콘텐츠들이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시즌2 업데이트의 첫 콘텐츠로 '스토리 퀘스트'를 공개한다.

진서연과 포화란 등 기존 유명 캐릭터들과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들 간의 새로운 인연이 공개되고, 마족의 침공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등 시나리오의 대전환이 시작된다.

문파 시스템 역시 '문파 2.0'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업데이트된다. 문파 전용 아이템을 제작할 수 있는 '문파 공방' 시스템이 22일 추가됐으며 향후 개선된 문파 시스템들이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시즌2 업데이트를 기념해 기존 이용자는 물론 신규 및 휴면 유저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동시 진행한다.

문파 전용 이벤트인 '집결하라 문파'를 2월 12일까지 실시한다. 문파 활동을 통해 쌓은 포인트로 소속 문파원들이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이벤트로 향후 업데이트될 지옥도에서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PC방 유저들에게 프리미엄 혜택을 제공하는 '만가촌의 비밀수련장'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최고 레벨용 영웅급 무기를 대여해 주는 파격적인 혜택과 더불어 PC방 포인트를 이용해 캐릭터 성장에 도움이 되는 고급 아이템을 구입할 수 있다.

/박성훈기자

'도타2' 한국e스포츠 공인리그

프로·아마 통합한 KDL 출범

넥슨의 AOS 게임 '도타2'가 한국e스포츠협회의 공인 리그로 채택됐다.

아울러 넥슨은 프로와 아마추어를 통합한 새로운 도타2 정규리그 '코리아 도타2 리그(KDL)'를 출범한다.

넥슨은 23일 서울 서초구 넥슨 아레나에서 이같이 밝히고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KDL' 운영의 경우 수준별로 '티어1' '티어2' '티어3' 세 단계로 나뉜다. 티어1은 최상위 실력을 보유한 4개의 프로 팀들로 구성된 그룹으로 매 경기 큰 규모의 상금이 걸려있으며 티어2는 프로와 아마추어가 함께 공존하는 그룹.

총 6개의 티어3는 크게 온라인 아마추어 리그, 오프라인 PC방 리그, 커뮤니티 리그 등 아마추어 대회로 구성된 두키 그룹으로 도타2를 즐기는 유저라면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아마추어 리그에서 우승할 때마다 주어지는 '티어포인트'를 가장 많이 획득한 상위 2개 팀은 티어2로 승격된다.

넥슨은 실력에 따라 상위 티어로 승격하거나 하위 티어로 강등될 수 있는 '스위치 시스템'과 연승 혜택을 통해 시즌 내 연승하는 팀에게 더 많은 상금을 수여하는 등 '위너 시스템'을 도입했다.

특히 티어1과 티어2 시합의 경우 상금을 매 경기마다 책정해 승리한 팀에게 바로 지급하며, 누적 상금으로 순위를 가른다.

KDL은 다음달 16일부터 연말까지 총 4개 시즌이 진행되며 티어1과 티어2에 속한 모든 팀의 경기는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와 일요일 오후 2시 넥슨 아레나에서 열리게 된다.

경기는 '스포티비 게임즈' '올레티비' '유플러스티비' '비티비' '네이버 e스포츠' '유튜브' '아프리카TV' '티빙' 등 온라인 및 모바일 채널에서 중계된다.

/박성훈기자

MMORPG '아스타' 백일 이벤트

MMORPG '아스타'가 서비스 시작 100일을 기념한 잔치를 연다.

NHN엔터테인먼트는 23일 아스타 서비스 100일을 맞아 이용자들과 함께 '백일잔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진행되는 백일 이벤트 첫 순서는 '마일레일 버프와 캐시아이템 대방출'이다. 특정 시간에 접속하는 이용자들은 '심도천의 감로' '몬스터 골드' 등 버프 및 캐시 아이템을 받을 수 있다. 격전 필드기장, 직업전장을 진행한 이용자들은 'PvP 보상 2배' 혜택도 얻을 수 있다.

/김승호기자

'프로야구매니저' 레전드카드 추가

프로야구단 운영 시뮬레이션 게임 '프로야구 매니저'가 새로운 선수카드를 공개했다.

엔트리브소프트는 프로야구 매니저에 한국 프로야구 최고 스타들만 등장하는 '레전드 카드'를 추가하고, 이를 기념한 레전드 팩 패키지를 다음달 13일까지 한정 판매한다고 23일 밝혔다.

신규 레전드 카드는 1995년 삼성 김상엽, 1996년 롯데 주형광, 1997년 해태 이대진 등 총 30명의 선수를 선보인다.

/김승호기자

허리·목 디스크 치료 진화 '고주파 10분'에 끝

국소마취 후 미세 내시경으로 비수술 치료···연예인·스포츠 선수도 시술 받아

연예인 가수 K씨는 최근 심해진 요통 및 우측 하지 방사통으로 강남의 유명 척추전문병원 및 대학병원을 찾아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한 후 추간판 탈출증 말기 진단을 받고 수술을 권유받았다.

하지만 수술이 무섭고 주변 사람들의 반대로 K씨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받고자 여러 유명병원을 찾았고 꼬리뼈 신경 성형술, 경막외 신경 성형술, 주사 요법 및 침 치료 등 여러 가지 비수술 치료를 받았다. 치료 후 통증이 호전되는 듯했지만 통증은 일시적으로 감소할 뿐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재발했고 결국 K씨는 수술을 결심하고 강남조이스병원을 내원했다.

담당 주치의인 조성태(사진 왼쪽) 병원장은 K씨를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 말기로 진단하고 국소마취 후 병변 부위에 직경이 작은 미세 특수 내시경을 정확하게 위치시키고 10여 분간 고주파 디스크 치료술을 시행했다. 치료 후 K씨는 탈출된 추간판이 제자리를 찾으면서 통증이 호전됐고 시술 당일 퇴원할 수 있었다.

이후 K씨는 바로 방송 활동에 복귀했으며 현재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빠른 회복을 보였다. 가수 K씨 시술 후에는 SBS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에 K씨와 함께 출연하는 유명 배우 L씨와 가수 G씨도 비슷한 증상으로 강남조이스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 이들 역시 현재 무리 없이 방송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강남조이스병원에서 최초로 시행한 고주파 특수 내시경 디스크 치료술은 일반 고주파 디스크 치료와는 다른 진화된 치료법으로 일반적인 디스크 질환뿐만 아니라 재발되거나 터진 디스크, 그리고 퇴행성 협착증까지 치료가 가능한 치료법이라 할 수 있다.

◆수술이 두렵거나 성인병, 노인 환자도 강남조이스병원에서

강남조이스병원은 이와 함께 수술을 두려워하는 환자, 고혈압·당뇨병·골다공증 환자, 노인 환자도 시술받을 수 있는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시술도 시행하고 있다. 이 시술은 국소마취 후 1.5mm 굵기의 관으로 연결된 내시경을 병변 부위에 집어넣어 직접 아픈 부위를 들여다보며 좁아진 척추관을 넓히고 돌출된 디스크 부위의 염증을 레이저로 제거하는 방법이다. 신경근 유착까지 제거가 가능하고 디스크의 크기를 줄일 수 있는 것이 이 시술의 특징이다.

수많은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이 찾아 이름이 알려진 강남조이스병원은 이렇게 내원 환자의 질환에 따라 경막외 신경 치료술, 고주파 디스크 치료,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등 다양한 시술로 환자를 치료한다. 특히 질환의 재발 방지와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환자의 질환·나이·증상에 따라 환자 1명을 척추전문의, 도수치료사, 운동치료사 및 물리치료사 등 4명이 전담하는 통합 진단·치료 시스템을 구축해 치료를 체계화시켰다.

이를 통해 환자들은 손으로 경직된 근육과 인대를 부드럽게 해주면서 잘못 자리 잡은 척추관절과 뼈를 바로잡는 도수치료, 컴퓨터 장비를 이용한 무중력 감압치료, 그리고 약화된 관절·근육 및 인대를 강화시키는 운동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현재 강남조이스병원은 지하철 서울대입구역 본원 외에 홍대입구역에 목·허리 및 어깨 통증 치료, 체형 교정(일자목·골반 불균형·휜 다리·측만증 등) 전문 치료클리닉 및 척추관절 비수술 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문의 (02)875-2200(서울대점)

(02)336-2200(홍대점)

/정지율기자

과체중일수록 퇴행성관절염 위험

정상 체중때보다 무릎 압력 4~7배 높아져

최근 무릎 퇴행성관절염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 중 과체중인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퇴행성관절염은 관절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 연골이 닳아 없어지며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보통 노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질환이다. 하지만 급격한 체중의 증가나 격렬한 운동 등도 퇴행성관절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비만인 사람은 체중이 정상인 사람에 비해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4~7배 정도 높다. 그만큼 관절 부담이 많아지고 이로 인해 부상 및 퇴행의 확률이 커지는 것이다.

특히 퇴행성관절염 환자들은 통증이 심해 운동을 기피하는데 이 때문에 살은 더 찌고 무릎에 더 큰 압력이 가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한다. 더욱이 외부 활동이 현저히 줄어들고 운동량도 적어지는 겨울철에는 비만으로 인한 퇴행성관절염을 더욱 조심해야 한다.

물론 체중 감량을 한다고 해서 이미 시작된 퇴화를 되돌릴 수는 없다. 하지만 체중 감량만으로 퇴행성관절염 증상의 정도는 개선시킬 수 있어 전문의와 상담한 후 자신에게 맞는 운동법을 선택해 체중 감량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만약 운동을 통해 체중 감량을 했는데도 통증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체외충격파나 주사치료 등의 비수술적인 요법으로 증상을 호전시킬 수도 있다. 체외충격파 치료는 체외에서 충격파를 병변에 가해 통증 감소와 기능 개선의 효과를 얻는 치료법이며 주사치료는 신경을 제어해 작은 자극에도 민감한 통증을 줄이는 방법이다.

의정부튼튼병원 조승묵 원장은 "퇴행성관절염의 가장 큰 원인은 노화지만 비만도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 시작한 운동이 오히려 관절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무작정 살을 빼겠다고 생각보다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겨울 '치질의 계절'···환자 1.5배 증가

추운 겨울에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질환이 많다. 그중 가장 복병으로 나타나는 겨울철 질환은 바로 치질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겨울철인 12월에서 2월 사이에 치질을 앓는 환자는 평소의 1.5배까지 늘어난다. 평소 치질 예방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다.

정순섭(사진) 이대목동병원 외과 교수는 "치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과 식습관이 매우 중요하다. 한자세로 오래 앉아있는 것을 피하고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혈액순환을 돕도록 해야 한다"며 "변비 예방을 위해서는 매일 8컵 이상의 물을 섭취하고 섬유질이 많은 채소와 과일,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락포트 슈즈와 함께 풍성한 설 맞이하세요

락포트 편안함+세련미 둘다 갖춘 신제품 출시
20만원 이상 구매고객에 선착순 머니클립 증정

스타일로 완성된 편안한 슈즈 브랜드 락포트가 움직임 편안함과 세련미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넘너 신발을 출시했다

새롭게 선보인 '헷지 힐 부츠'는 이번 시즌 핫 아이템으로 떠오른 미드 컷 부츠로 남성용 신발이다

발목에서부터 부드럽게 떨어지는 실루엣이 돋보이며 최고급 천연 소가죽을 사용해 고급스럽다 천연 고무와 EVA 소재를 혼용한 밑창이 안정적인 보행을 도와주고 어디프린(adiPRENE) 기술을 적용해 걸을 때 발에 전해지는 충격을 흡수한다 또한 유연성·통기성 내구성을 강화해 오랫동안 편안하게 신을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기능성과 함께 외관에도 신경을 썼다 깔끔한 디자인으로 캐주얼룩은 물론 깔끔한 댄디룩에도 두루 잘 어울려 데일리 슈즈로 손색이 없다 브라운과 블루 두 가지 색상이 있으며 가격은 30만원이다

함께 내놓은 '세븐 투 7 힐'은 하루 종일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여성용 하이힐이다 윗부분에는 부드러운 벨론 컬러의 스웨이드 소재를 아래는 브라운 컬러의 가죽 소재를 사용한 '컬러 블록'으로 세련되고 날씬한 실루엣을 연출한다 앞쪽에 플랫폼을 덧대 장시간 신어도 발이 편안하다

미끄럼을 방지하면서 쉽게 마모되지 않는 고무 소재의 아웃솔을 적용해 구선감이 뛰어나다 통기성을 강화한 안창은 발을 보송보송하고 쾌적하게 만들어준다

또한 락포트만의 차별화된 테크놀러지인 어디프린(adiPRENE) & 아디프렌플러스(adiPRENE+) 기술을 써 발 앞부분의 유연성과 단력성을 높이고 발뒤꿈치로 전해지는 충격을 줄였다

특히 이탈리아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만든 트렌디한 디자인으로 원피스와 팬츠에 모두 잘 어울려 오피스룩 등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세븐 투 7 힐은 컬러 블록이 가미된 벨론 컬러와 깔끔한 블랙 컬러로 출시됐으며 가격은 30만원이다

한편 락포트는 설을 맞아 전국 매장에서 2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머니클립을 선착순으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문의 www.rockportkorea.com/02)2635-7729

/박지원기자

왼쪽부터 남성용 헷지 힐 부츠, 여성용 세븐투7힐, 20만원이상 구매 고객에게 증정될 머니 클립 제품

습도조절 위해 널어둔 수건 자칫 박테리아 온상 될수도

건강한 '겨울 빨래 관리법'

건조한 겨울에는 집 안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젖은 수건이나 빨래를 널어놓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빨래를 젖은 상태로 장시간 둘 경우 박테리아를 증가시켜 불쾌한 냄새가 나고 건강에도 해롭다 특히 빨래가 마르면서 섬유 속에 포함된 세제 성분이 공기 중에 섞여 호흡기를 자극할 수 있다

세탁 전문 프랜차이즈 크린토피아 관계자는 "알레르기 비염·아토피 같은 피부질환의 원인인 집먼지 진드기는 적정 실내 습도인 50~60%를 넘는 환경에서 왕성히 증식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이불은 밤에 자면서 흘리는 땀과 피부 각질이 묻어 집먼지 진드기가 번식하기 좋은 장소가 되므로 겨울철에는 정기적으로 세탁하고 소독한다 가정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이불을 세게 털어 각질 비듬·집먼지 진드기 등을 제거하고 햇볕에 30분 이상 말리는 게 좋다

집먼지 진드기는 60도 이상에서 사멸되기 때문에 이불을 빨 때는 찬물이나 미지근한 물 대신 물의 온도를 최소 55도 이상으로 한다 세탁 후에는 완전히 말린 뒤 막대기로 충분히 두드려 집먼지 진드기 사체와 먼지 등을 털어내면 깔끔하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두타 오늘부터 겨울의류 마감 세일

내달 9일까지 최대 80% 양말 증정 등 이벤트도

패션전문점 두타(대표 이승범 www.doota.com)가 24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겨울 상품 마감 행사인 '두타 윈터 굿바이 세일'을 개최한다

먼저 두타 전관 500여 개 매장에서 코트·다운점퍼·무스탕·니트·부츠 등 겨울 상품을 30~80% 할인 판매한다

특히 '알라니' '세뇨리따' '쉬드로브' '모스타' '본더갈며' '로우클래식' 등 인기 디자이너 브랜드도 최고 80%까지 저렴하게 선보인다

전관 구매 고객에게는 '양말 자판기'로 유명한 디자인 양말 브랜드 '아이헤이트먼데이(I hate Monday)'의 겨울 양말을 증정한다

이밖에 캘리그래퍼(손글씨 아티스트)가 고객의 이름과 새해 소망을 엽서와 노트에 직접 써서 증정하는 캘리그래피 이벤트가 지하 1층에서 진행된다

두타 페이스북(@doota.fb)에서는 어지웨이 버블티 쿠폰과 캘리그래피 텀블러 등 선물을 증정하는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진다

두타 마케팅팀 김춘문 팀장은 "이번 행사에는 두타 전 매장들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세일률로 행사에 참가해 경기 불황으로 얇을해진 고객들에게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며 "구정을 맞아 설 선물 상품도 다양하게 선보일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두타는 30일부터 31일까지 구정 휴무에 들어간다

/신원철기자

다이소 전국매장서 '설맞이 도우미 용품전'

다이소는 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 940여 개 매장에서 '2014 설맞이 도우미용품전'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설 음식 준비 부담을 덜어주는 노른자분리기·밥가위 등 조리 도우미용품, 윷놀이 등 명절놀이 도우미용품, 목베개·접식공간지제 등 귀성길 안전 도우미용품 등 400여 개 제품을 500~5000원에 판매한다

이 밖에 추운 겨울 성묘길에 도움이 되는 방석과 핫팩, 무릎담요와 각종 일회용 접시와 종이컵·돗자리 등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커피와 초콜릿, 겨울에 딱 맞는 맛 궁합

쌉싸름함과 달콤함 조화…캡슐커피·컵커피·카페 메뉴로 출시 열풍

최근 하루 종일 영하권을 맴도는 추위가 계속되고 있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우리 몸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열량을 소비하게 된다. 이때 몸은 당분→지방→단백질 순서로 열량을 소비하게 되는데 겨울철 몸을 따뜻하게 데우고 열량을 보충하는 데는 달콤한 초콜릿이 제격이다.

최근 커피 업계에서는 초콜릿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커피의 쌉싸름한 맛과 초콜릿의 달콤함이 조화를 이루고 캡슐커피·컵커피·커피전문점 메뉴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출시되고 있다.

네스프레소는 이번 겨울 진한 다크 초콜릿 향의 한정판 베리에이션 '치오코로소(Cioccoroso)'를 출시했다. 진한 다크 초콜릿과 산뜻한 과일 향이 조화를 이루는 커피로

네스프레소 캡슐 '리반토'를 베이스로 했다. 에스프레소로 추출해 따뜻한 우유와 우유 거품을 더하면 부드러우면서도 향긋한 라테 마키아토를 즐길 수 있다. 여기에 부드러운 우유 거품만을 얹어 산뜻한 초콜릿 향의 카푸치노로 즐기기에도 좋다.

커피전문점에서도 겨울 시즌에만 맛볼 수 있는 초콜릿을 사용한 이색 커피를 내놓고 있다.

엔제리너스의 '더블샷 시나몬 초코'는 에스프레소 더블샷에 시나몬 향 그리고 초콜릿을 더한 커피다. 에스프레소의 깊은 맛과 시나몬의 풍부한 향, 초콜릿의 달콤함을 한번에 즐길 수 있다.

할리스는 겨울 시즌용으로 리얼 벨지안 커피모카를 출시했다. 초콜릿 파우더나 시럽이 아닌 카카오 55%의 벨지안 다크 초콜릿을 직접 녹여 만들어 지나치게 달지 않으면서도 초콜릿의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다. 직수입한 벨기에산 고급 초콜릿과 에스프레소가 만나 달콤쌉싸름한 맛이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강추위에 편의점에서 저렴하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초콜릿 커피도 눈길을 끈다.

디초콜릿 커피는 편의점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원컵 형태의 '커피초코라떼'를 전국 CU 매장을 통해서 선보였다. 커피초코라떼는 100% 정통 아라비카 원두에 진한 초콜릿을 넣어 달콤함을 더한 제품으로 뜨거운 물만 부으면 프리미엄 초코라떼를 즐길 수 있다.

/정해림기자 ljm@metroseoul.co.kr

복분자주 해외수출 위해 롯데주류-흥진 업무협약

롯데주류가 지방의 우수한 중소 주류기업과 손잡고 동남아 지역에 우리 술 한류 붐을 본격 조성한다.

롯데주류는 23일 전라북도 고창의 중소 주류업체인 선운산 복분자수 흥진과 '복분자주 해외 수출'을 공동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의 업무제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을 통해 농업법인 흥진에서는 해외에 판매될 복분자주 등 생산하고 롯데주류는 관련 제품의 연구 개발(R&D) 지원과 수출 업무, 현지 마케팅 등을 담당하기로 합의했다.

복분자주는 2009년 아셈(ASEM) 정상회의, 2006년 ILO 아시아 태평양총회 등에서 만찬주로 사용됐던 우리나라 대표 전통주다.

편의점 가격에 즐기는 '카페 메뉴'

베지밀 그린티 두유라떼·산타페 더치 등 인기

오랜 불황으로 소비 패턴이 절약형으로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커피전문점의 음료를 저렴하게 즐기려는 알뜰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각 음료 업계도 이런 추세를 반영해 티(tea)라테, 커피 등 전문점의 인기 음료를 그대로 재현한 제품을 잇따라 편의점에 출시해 호응을 얻고 있다.

정식품이 최근 선보인 '베지밀 그린티 두유라떼'는 저렴한 가격으로 커피전문점의 그린티 라테를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고 두유 제품과 달리 젊고 세련된 디자인의 테트라 용기로 출시 2달여 만에 판매량 130만 병을 돌파했다.

롯데는 1100원에 프리미엄 커피음료 '산타페 더치 아메리카노'와 라테 2종을 선보여 '더치커피=높은 가격'이라는 인식을 바꿔놓고 있다. '산타페 더치

아메리카노'는 깔끔하면서도 커피 원두 본연의 쓴맛과 풍부한 향을 즐길 수 있으며 '산타페 더치 라테'는 잔미(殘味)가 오래 남지 않는 깔끔한 단맛과 부드러운 우유의 느낌을 맛볼 수 있는 제품이다.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버블티도 편의점에 등장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정해림기자

견과류·멸치·김 '설 선물 새바람'

올해 대형마트에서 견과류를 비롯해 멸치·김 등 건식식품이 설 선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설 선물세트 판매를 시작한 16일부터 21일까지의 매출을 분석한 결과 멸치·견과·건버섯 등 건식 세트의 경우 지난해 설 동기 대비 18.3%의 신장률을 기록하며 호조를 보이며 설 매출 신장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이 기간 견과류 선물세트 매출은 197%의 신장률을 기록하며 전년 3배 수준으로 성장했으며 건버섯은 137%, 멸치 31.7%, 김은 10.1%씩 매출이 늘었다. 이로 인해 전통적인 신선식품 선물세트 매출 판도도 크게 변했다. 한우, 김, 과일 등은 여전히 매출 상위권을 지켰지만 재작년까지 10위권 밖에 머물렀던 견과류 선물세트는 이 회사의 창사 이래 처음으로 5위에 올랐다.

설 기간 신선식품 내 건식 선물세트의 전체 매출 비중은 2012년 31.2%, 2013년 34.0%에서 올해 처음으로 40%대를 돌파했다.

/송경원기자

'백수오미인' 되고 '건강한 관절' 지키세요

글로벌 생활용품 브랜드 타파웨어 브랜즈(www.tupperwarebrands.co.kr)의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네이처케어가 다가오는 설날을 맞아 '백수오 미인'과 '건강한 관절'을 코도 선물로 제안했다.

'백수오 미인'은 우바족(갱년기 여성)의 건강을 위한 것으로 '흰머리를 검게 한다'는 뜻을 가진 약재인 백수오 등의 복합 추출물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으며 '건강한 관절'은 관절 및 연골 건강, 피부 보습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이다.

두 제품은 전국 타파웨어 대리점에서 구입 가능하며 네이처케어는 1월 말까지 특별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제품 문의는 타파웨어 브랜즈 홈페이지 또는 고객 상담실(080-023-8811)로 하면 된다.

'뷰티앤헬스' 이용권 받으면 좋겠네

스무디킹 건강프로그램 설 명절 선물로도 제격

글로벌 넘버원 오리지널 스무디 브랜드 스무디킹(대표 김성완)이 다가오는 설 명절, 가족과 친구들을 위한 선물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건강한 영양 습관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뷰티앤헬스(Beauty &Health)' 프로그램을 추천한다.

또한 지금 스무디킹 매장에서 뷰티앤헬스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는 스무디 무료 시음권(스몰 사이즈)을 증정한다.

스무디킹의 뷰티앤헬스 프로그램은 스무디 한 잔과 인핸서(영양 파우더) 한 스푼을 30일 동안 21회 제공하는 건강한 스무디 식단 프로그램으로, 하루 한 잔 맞춤형 스무디를 통해 '클린(독소 배출)' '다이

어트(체중감량)' '빌드업(근육생성)' 중 목적에 맞는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

전국 스무디킹 매장을 방문해 스무디 전문가 '스무디오(Smoothie O)'에게 목적에 맞는 스무디와 함께 '다이어트다운' '머슬빌더' '데일리비타민' 등 기능 강화 인핸서로 이루어진 맞춤형 식단을 안내받을 수 있다.

"난 깡다구 끝내주는 여자랑께~"

'응답하라 1994'로 대세 떠오른 민도희

"누구나 인생에 한 번쯤 기회가 찾아온다." 지난 2012년 걸그룹 타이니지의 멤버로 데뷔한 민도희(21)에게 딱 맞는 말이다. 데뷔 후 무명에 가까운 시간을 보내며 힘든 시기를 보냈던 그가 최근 '응답하라 1994'(이하 '응사')를 통해 세간에 이름을 알리며 스타덤에 올랐다. 덕분에 그의 소속팀까지 인지도가 급상승했다. 그의 걸그룹 행보에 추세가 될 정도로 '대세'로 떠오른 민도희는 "생각보다 부담감이 크다"고 밝혔다.

/유순호기자 yoo@metroseoul.co.kr

◆ "천운을 타고난 것 같아요."

'응사'를 통해 스타덤에 오른 민도희는 신원호 PD가 찾아낸 비밀 병기다. 그는 구수한 여수 사투리를 사유자재로 구사하며 열네 살 연상의 배우 김성균과 완벽하게 호흡을 맞췄다. 연기력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걸그룹 출신' 꼬리표까지 떼내며 윤진이라는 캐릭터를 완벽하게 표현했다. 그러나 '응사' 캐스팅은 우연에 가까웠다.

"저는 천운을 타고난 것 같아요. 제작진이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여배우를 찾는다는 얘기를 듣고 오디션을 보러 갔죠. 다른 오디션들과 달리 감독님과 작가님들이 연기는 안 시키셨고 계속 대화만 하게 했어요. 단 사투리를 써보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사투리만 썼죠. 고향 친구들 사이에서도 사투리가 가장 심한 저한테는 쉬운 일이었죠."

천운은 이뿐만이 아니다. 타이니지 멤버로 발탁된 것도 마찬가지다. 그는 "작은 제구가 결정적이었다"며 "음악학원 선생님의 추천으로 오디션을 봤는데 소속사에서 '미니멀' 콘셉트를 원했고 덕분에 딥 마지막 멤버로 뽑혔다"고 고백했다.

◆ 모든 걸 새롭게 바꾼 '응사'

민도희는 '응사'를 만나 무명에서 하루 만에 '대세'로 급부상했다. 덕분에 모든 게 새롭기만 하다.

"털털한 성격인데 작은 행동이나 말 하나도 조심스러워졌죠. 편의점에 가면 욕 해달라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모든 게 새롭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웃음)

그러나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자신감이다. 그는 "평소 활발한 성격인데 사투리가 심해서 데뷔 후 언론과 행사를 가서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나 자신이 작아지는 것 같았다"며 "'응사'를 통해 사투리로 사랑받으면서 오히려 과거 자신감을 되찾았다"고 털어놨다.

사투리를 넘어 윤진의 모습을 완벽하게 표현하면서 바뀐 부분도 있다. 그는 "좋아하는 연예인은 있지만 광적이지 않아 스타에 목매는 윤진을 100% 공감할 수 없었다"며 "주변에 물어봤더니 '미친X처럼 연기하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당시 서태지 선배의 은퇴 선언 영상과 팬들의 모습을 보고 윤진을 그렸다. 이제는 팬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가수에서 배우로 거듭난 민도희는 "두 가지 모두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최근 6개의 CF를 촬영했고 예능까지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할 정도로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 여기에 소속팀인 타이니지가 오는 4월 컴백을 목표로 연습에 매진하고 있다. 하지만 표정은 밝았다.

"체격은 왜소하지만 '깡' 하나만큼은 자신있어요. 소속사 사장님도 인정했죠. 저를 배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수로서 인정받고 싶어요. 물론 연기에 대한 욕심도 있죠. 독서와 표준어 배우기에 정신없죠."(웃음)

1년 뒤, 5년 뒤, 10년 뒤 목표에 대해 그는 "가수로 데뷔해 다양한 캐릭터를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는 엄정화 선배와 같은 연기자가 되고 싶다"며 "음악적인 부분에서는 백지영 선배처럼 되고 싶다. 발라드 가수로 알고 있었는데 과거 댄스 가수로 활동한 모습을 보면서 팬이 됐다"고 미래를 그렸다.

**작품 오디션 장기인 사투리만 주문
걸그룹 막차 캐스팅 작은 제구 덕분
천운 타고난 듯…연기 미친X처럼
지금 표준어 열공…가수·배우 욕심**

사진/윤예중(라운드테이블) 디자인/박은지

북미, 엑소 인기 1위…유럽선 샤이니

K-팝 가수 국가별 선호도

'한류 진원' 아시아 경쟁 치열 中-에프엑스, 日-김현중 으뜸

전 세계에 K-팝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 가운데 해외 팬들의 한국 가수 선호도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CJ E&M 스마트미디어사업본부는 지난해 1년 동안 글로벌 K-컬처 플랫폼인 엠웨이브를 통해 엠넷 '엠카운트다운'의 순위 결정에 참여한 해외 팬들의 투표 데이터를 분석해 23일 발표했다.

1년간 178개 국가 팬들의 투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내 가요계를 평정한 엑소(사진 왼쪽)는 북미와 오세아니아 등 영어권 국가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엑소는 미국에서 11.1%의 지지율로 틴탑과 샤이니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고 캐나다에서 12.1%, 호주에서 13.4%로 정상에 올랐다.

유럽에서는 샤이니의 인기가 압도적이었다. 샤이니는 영국·프랑스에서 각각 15.4%와 11.0%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고 폴란드(13.4%)·이탈리아(15.4%)·스페인(8.6%) 등 유럽 전역에서 1위를 기록하며 고른 인기를 보였다.

한류의 진원지인 아시아에서는 여러 가수들이 각 국가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중국에서는 에프엑스(오른쪽)가 27.1%로 1위에 올랐고, 일본에서는 김현중이 19.0%로 1위, 대만에서는 FT아일랜드가 21.0%로 1위에 랭크됐다. 필리핀에서는 2NE1이 1위를 지켜 여성 그룹의 자존심을 지켰다.

이외에 인도에서는 엑소,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슈퍼주니어의 헨리, 멕시코에서는 샤이니, 브라질에서는 에프엑스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 한국에서는 엑소가 12.4%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다.

CJ E&M 스마트미디어사업본부 서정민 글로벌사업부장은 "국민적 특성이나 아티스트의 해당 국가 활동 여부 등에 따라 국가별로 선호하는 K-팝 아티스트에 차이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투표에는 짐바브웨·콩고·자메이카·우간다·몰디브·피지 등의 국가에서도 투표가 집계돼 전 세계적인 K-팝의 인기를 확인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지드래곤 한국대표 팝스타 영향력은 아시아 넘어섰다"

美 빌보드 자매지 할리우드 리포터 집중조명

미국 빌보드 자매지인 할리우드 리포터가 가수 지드래곤(사진)의 글로벌 영향력과 음악적 감각을 집중 조명했다.

할리우드 리포터는 31일자 특집 기획 '팝 고스트 월드'에서 미국 출신이 아니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팝스타들을 소개하며 지드래곤을 캐나다 출신 에이브릴 라빈, 영국의 엘리 굴딩 등 각국을 대표하는 9명의 팝스타 중 한 명으로 꼽았다.

지드래곤의 정규 솔로 2집 '쿠데타'가 빌보드 200에 랭킹됐던 사례를 언급하며 디플로·바우어·미시 엘리엇 등 세계적인 해외 뮤지션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호평했다. 또 지드래곤이 저스틴 비버와 작업한 미발표곡이 남아있음을 언급해 그의 행보에 기대감을 높였다.

2012년 월드투어를 통해 80만 명을 동원한 글로벌 관객 파워를 언급하며 빅뱅뿐 아니라 솔로 아티스트로서도 영향력이 아시아를 넘어섰다고 극찬했다. 앞서 지드래곤은 콤플렉스·뉴욕타임스·퓨즈TV 등 해외 언론에서 음악성과 스타일을 인정받으며 독자적인 K-팝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

한편 지드래곤은 24~26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2014 빅뱅 얼라이브 서울' 콘서트를 개최한다. /원은정기자 eunh@metroseoul.co.kr

예원 "진정한 베이글녀" 쥬얼리의 예원이 차세대 섹시 아이콘 자리를 예약했다. 그는 헥스와 광고 계약을 맺고 시크릿의 전효성의 뒤를 이어 걸그룹 멤버로는 두 번째로 이 브랜드 모델로 활동하게 됐다. 헥스 측은 예원을 "아이돌계 베이글 꽉 꽉 글래머로 주목받고 있는 라이징 스타"라고 소개했다. /유순호기자

"에일리 올해 가장 기대되는 아티스트"

일본 아이튠즈 선정

가수 에일리(사진)가 일본 아이튠즈가 꼽은 2014년 가장 기대되는 아티스트에 선정됐다.

일본 아이튠즈가 최근 발표한 '아이튠즈 뉴 아티스트 2014'의 12팀에 에일리가 포함됐다. 에일리는 아시아 아이튠즈에서 꼽은 '아이튠즈 펜 아시아'에도 선정돼 일본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도 2014년 가장 기대되는 아티스트로 손꼽히며 큰 주목을 받았다.

23일 소속사 YMC엔터테인먼트는 "동양권 아티스트가 '아이튠즈 뉴 아티스트'와 '아이튠즈 펜 아시아'에 동시에 선정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며 "에일리가 2014년 가장 기대되는 월드 클래스의 차세대 아티스트라는 것을 입증하는 발표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이튠즈 펜 아시아'는 홍콩과 대만·마카오·싱가포르·말레이시아·필리핀·태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13개국에서 미래를 밝힐 아티스트 10팀을 선정한다.

한편 에일리는 '노래가 늘었어'로 3주째 주요 음원차트 상위권을 유지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성훈기자 ysw@

가인 '아찔한 유혹'

'Fxxk U' 욕실 티저 공개

가수 가인이 오는 28일 세 번째 미니앨범 '진실 혹은 대담' 발표를 앞두고 선공개곡 'Fxxk U'의 티저 사진을 공개했다.

가인은 23일 소속사 공식 페이스북과 공식 트위터를 통해 '가인 선공개곡 'Fxxk U' 티저 이미지 공개'라는 제목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올렸다.

공개된 티저 이미지에는 몽환적인 무드의 조명 아래 욕실 샤워 커튼 뒤에서 한 여자가 묘렷한 실루엣을 드러내며 아찔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 사진이 담긴 티저 영상은 24일 공개될 예정이다.

Fxxk U 티저 사진 /미스틱엔터테인먼트 제공

'Fxxk U'는 R&B 장르의 곡으로 범키가 피처링에 참여했다. 너무 사랑하면 오히려 불안해지는 아이러니한 애증의 심정을 담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가인은 다음달 6일 컴백할 예정이다. /정성훈기자

오지호 의류업 종사자와 2년째 열애

3세 연하… "상견례 아직"

배우 오지호(사진)가 3세 연하의 일반인 여성과 2년째 열애 중이다.

23일 열애설이 불거지자 소속사 관계자는 "오지호가 의류업계에 종사하는 여자친구 은모씨와 2년 전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 현재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함께 불거진 올봄 결혼설에 대해서는 "오지호가 결혼 적령기를 넘겼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지만 아직 양가 상견례를 거치지 않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오지호는 지난해 KBS2 '직장의 신'을 통해 KBS 연기대상 미니시리즈 부문 남자우수연기상을 수상했으며 다음달 5일 OCN '처용'으로 안방극장에 돌아온다.

/박진환기자

'응급남녀', '응사' 넘을까

돌싱 부부 로맨틱 코미디 오늘 첫 방송… 송지효 만취연기 공개 '눈길'

tvN 금토드라마 '응급남녀'가 전작인 '응답하라 1994'(응사)의 높은 인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첫 방영될 이 드라마는 6년 전에 이혼했던 원수 같은 부부 오진희(송지효)와 오창민(최진혁)이 병원 응급실에서 인턴으로 다시 만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20부작 로맨틱 코미디물이다.

인기 드라마 '황진이' '대물' 등을 연출한 김철규 PD가 연출을 맡고 '내게 거짓말을 해봐' '스포트라이트'를 집필한 최윤정 작가가 집필에 참여했다.

이 드라마는 평균 시청률 10%에 육박하는 기록으로 신드롬을 일으킨 '응사'의 후속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그러나 시청자들이 전작의 스타일에 익숙해진 데다 기대치가 높다는 점에서 부담감도 적지 않다.

제작진은 '돌싱'이 늘어가는 세태에서 이혼한 부부의 이야기로 공감을 이끌어낸다는 전략을 세웠다. 특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응급실이라는 장소에서 원수 같은 커플이 만나면서 생기는 일촉즉발의 사건들로 색다른 재미를 선사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의학물들이 의학과 로맨스에서 갈팡질팡해 비판을 받았다면, '응급남녀'는 아예 배경만 병원으로 했을 뿐 전적으로 로맨스를 표방했다.

특히 SBS '런닝맨'으로 사랑받는 송지효가 망가지는 연기도 불사하는 등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23일에는 송지효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만취해 실신하는 장면이 공개돼 눈길을 사로잡았다.

김 PD는 최근 제작발표회에서 "전작이 워낙 크게 성공해 굉장한 부담이었다. 이번처럼 힘든 상황은 처음"이라면서도 "하지만 대본, 연기, 현장 분위기 등 모든 것이 잘 어우러져 작품이 완성도 있게 나오고 있다.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기대를 당부했다.

/박진환기자 ［email］@metroseoul.co.kr

'별그대' 김수현 카메라 잡은 까닭은

배우 김수현(사진)이 SBS 수목극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 촬영장의 활력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3일 제작진은 도민준 역 김수현의 촬영장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김수현은 촬영장에서 카메라를 조정했고 심지어 부감샷을 찍기 위해 마련된 장비에도 올라가 직접 촬영하며 미소를 보였다.

'별그대' 이길우 촬영감독은 "김수현은 촬영장을 에너지 넘치고 밝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데 칭찬이 무색할 정도로 현장에 임하는 태도가 뛰어나다"며 "이번 카메라 촬영 사진도 '이거 한번 찍어보라'고 제안했을 때 그가 주저없이 임하면서 스태프들에게 즐거움을 안긴 것"이라고 전했다.

'별그대'는 22일 24.5%로 같은 시간대 시청률 1위를 질주했다.

/정성은기자 ysw@

거침없는 토종 애니 '넛잡'

북미 흥행수익 2570만 달러 돌파… 한국영화 최고기록 연일 경신

29일 국내 개봉을 앞둔 토종 애니메이션 '넛잡: 땅콩 도둑들'(이하 넛잡·사진)이 북미 극장가를 휩쓸며 한국 영화 사상 최고 기록을 연일 경신하고 있다.

박스오피스모조에 따르면 '넛잡'은 북미 박스오피스에서 개봉 4일 만에 2570만 달러(현지시간 20일 기준)의 흥행 수익을 거둬들였다. 특히 17일 개봉 당일 박스오피스 4위로 출발했으나 '겨울왕국', '론 서바이버' 등 라이언'을 제치고 지난 일요일부터 2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또 이날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른 '라이드 어롱'과의 격차가 근소해 '넛잡'의 박스오피스 1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배급사 싸이더스 픽쳐스는 "'넛잡'의 선전은 북미 시장에 진입한 한국 영화사의 역사를 새로 써내려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미국 현지 예매율이 관객들의 좋은 입소문을 타고 급상승해 반등한 상승세는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넛잡'은 국내 애니메이션 영화 사상 최고의 제작비인 450억 원 투입, 한국 영화 사상 최초로 미국 전역 3427개 관 개봉, 전 세계 120여 개국 선판매, 싸이의 참여 등 개봉 전부터 화제를 모았다. 사고뭉치 다람쥐 설리와 친구들의 기상천외한 땅콩털이 대작전을 다룬 영화다.

/박진환기자

'쓰리 데이즈…' 4월 개봉

화려한 제작진과 배우들의 참여로 화제를 모으는 액션 블록버스터 '쓰리 데이즈 투 킬'(사진)이 4월 3일 개봉을 확정했다.

이 영화는 전직 최고의 비밀요원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가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미션을 수행하는 이야기를 다룬다.

프랑스 출신 유명 감독 뤽 베송이 제작과 각본에 참여하고 '터미네이터4', '미녀 삼총사'를 연출한 맥지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또 액션 스타 케빈 코스트너와 조니 뎁의 약혼자이자 할리우드의 섹시 스타 앰버 허드가 합세했다.

23일 공개된 포스터는 블랙&화이트의 세련된 이미지를 배경으로 코스트너의 강렬한 모습을 담아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유순호기자

비 + 태진아 '비진아' 무대 열린다

네티즌에게 폭발적인 화제를 모은 '비진아'의 무대가 마침내 성사됐다.

비(사진)와 태진아가 24일 KBS2 '뮤직뱅크'를 시작으로 25일 MBC '쇼! 음악중심', 26일 SBS '인기가요'에서 차례대로 스페셜 무대를 꾸민다. 최근 온라인에는 비의 신곡 '라 송'과 태진아의 히트곡 '동반자'의 무대를 합친 이른바 비진아 영상이 큰 인기를 모았다. 비 측은 합동 무대를 제안했고, 태진아가 이를 받아들여 두 사람이 실제 무대에서 합동 공연을 펼치게 됐다.

발매 4주째에 접어든 '라 송'은 패러디 영상의 인기를 타고 음원차트에서 빠른 속도로 순위가 역주행하는 인기를 얻었다. 비는 이번 스페셜 무대를 위해 미국에서 진행할 영화 관련 일정을 조정했고 태진아와 듀엣 무대를 열게 됐다.

/유순호기자 [email]@

미쳐서 결혼하고
정신차려 이혼했다!
tvN 금토드라마
응급남녀
오늘 저녁 8시 40분 tvN 방송
매주 금,토 방송
송지효
최진혁
이필모
최여진
클라라
연출 김철규
극본 최윤정

날씨
1/24金 07:42 17:47
복원되는 국내 첫 서양식 호텔
권기봉의 도시산책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30년 직장생활 접고 내년 명퇴
외주업체 참모 역할 가장 적당
늦은 나이지만 역학공부 욕심
일관되게 노력하면 좋은 결과
산점[算占] 운세

23일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선수촌 챔피온하우스에서 열린 소치 동계올림픽 한국 선수단 결단식에서 김재열(왼쪽 오른쪽) 선수단장이 단기(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뉴시스

"3회 연속 톱10 간다"

태극전사 소치올림픽 결단식 선수단 113명 '역대 최다' 금메달 4개 목표

태극전사들이 3회 연속 동계올림픽 톱 10을 향한 의지를 다졌다.

대한체육회는 23일 오후 공릉동 태릉선수촌 챔피언하우스에서 2014 소치 동계올림픽(다음달 8~24일)에 출전할 선수단 결단식을 열었다. 결단식에는 쇼트트랙·컬링·루지 등 해외 전지훈련 중인 선수들을 제외하고 스피드스케이팅·피겨스케이팅·알파인스키·스키점프·봅슬레이·스켈레톤 종목 등의 선수와 임원을 포함한 80여 명의 선수단이 참석했다.

행사에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해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정행 대한체육회장과 경기단체장 등이 자리해 선수단을 격려하고 선전을 당부했다. 체육회는 국가대표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처음으로 휘장을 만들어 선수들에게 전달했다.

이번 올림픽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64명의 선수와 49명의 임원 등 총 113명이 참가한다. 각국 선수들은 스키·빙상·바이애슬론·봅슬레이·컬링·아이스하키·루지 등 7개 종목(15개 세부 종목)에서 98개 금메달을 놓고 기량을 겨룬다.

한국은 아이스하키와 노르딕복합을 제외한 13개 세부 종목에 출전한다. 스피드스케이팅에 가장 많은 15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쇼트트랙과 봅슬레이에 각각 10명, 컬링 5명, 루지 4명, 피겨스케이팅 3명, 바이애슬론과 스켈레톤에 각각 2명이 나선다. 스키 종목에는 알파인스키 5명, 크로스컨트리·스키점프·프리스타일스키·스노보드 각각 2명 등 총 13명이 출전한다.

선수단 본단은 다음달 1일 전세기편으로 출국한다. 이에 앞서 쇼트트랙 선수단은 22일 전지훈련지인 해발 1800m대 고지의 프랑스 퐁트로뮤로 떠났고 다음달 5일 소치로 이동한다.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들도 25일 먼저 출국해 네덜란드 헤렌벤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다음달 3일(장거리)과 5일(단거리) 소치에 도착한다.

우리나라는 소치에서 금메달 4개 이상을 획득해 겨울 올림픽 3회 연속 종합 순위 10위 안에 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순호기자 sune@metroseoul.co.kr

1도움·승부차기 골…'마스터 키' 기성용

선덜랜드, 맨유 이기고 29년만에 리그컵 결승행

'캡틴 시나이' 기성용(25·선덜랜드)의 활약에 대해 국내외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기성용의 활약으로 선덜랜드가 캐피털원컵 결승행을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현지 언론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선덜랜드는 23일 영국 맨체스터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와의 캐피털원컵 4강 2차전서 연장전까지 1-2로 뒤진 채 경기를 마쳤다. 1·2차전 합계 3-3을 기록한 양팀은 승부차기에 돌입했고 선덜랜드가 승부차기에서 2-1 승리를 거두며 29년 만에 컵대회 결승에 진출했다.

기성용은 승부차기에서 네 번째 키커로 나서 득점에 성공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또 연장 후반 13분 필리 바슬리의 득점을 어시스트하는 빼어난 활약을 펼쳤다.

선덜랜드 FC의 기성용(왼쪽 이)이 23일 영국 맨체스터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2013~2014 캐피털원컵 4강 2차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거두고 팀 동료 파브리스 보릴로와 기쁨을 나누고 있다. /AP 뉴시스

영국 스카이스포츠는 기성용의 맨유전 활약에 대해 평점 8점을 부여했다. 기성용은 팀 내 최고 평점을 기록한 골키퍼 비토 마노네(9점)에 이어 팀 내 두 번째로 높은 평점을 기록했다.

기성용은 지난 시즌에도 리그컵에서 뛰어난 플레이를 펼치며 소속팀 스완지시티 AFC를 우승으로 이끌었다. 두 시즌 연속 리그컵에서 좋은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기성용에게 현지 언론은 '리그컵 행운의 부적'이라며 극찬을 보내고 있다.

반면 맨유 골키퍼 다비드 데 헤아는 양팀 통틀어 최저인 평점 5점을 기록했다. 데 헤아는 승부차기에서 선방을 펼쳤으나 연장 후반 13분 결정적인 실수로 바슬리에게 골을 허용했다.

/정책승기자 ysw@

추신수 연봉 넘어선 다나카

7년 1650억원 양키스 입단

일본의 '괴물 투수' 다나카 마사히로(26·사진)가 추신수의 아시아 선수 최고 연봉 기록을 깨고 뉴욕 양키스에 입단한다.

양키스는 22일(현지시간) 구단 홈페이지에 다나카와 7년 1억5500만 달러(약 1650억원)에 입단 계약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2014~2019년 6년 동안 2200만 달러를 받고, 7년차가 되는 2020년에 2300만 달러를 받는 조건이다. 2017년까지 4시즌을 채우고 선수가 원할 경우 자유계약선수(FA)를 얻는 옵트아웃 조항과 전 구단 트레이드 거부권까지 얻었다.

다나카의 평균 연봉은 현역 메이저리그 투수 중 8번째로 많다. 올 시즌 연봉만 따지면 투수 중 6위, 전체 12위다. 또 다나카는 아시아 선수 최초로 1억 달러 이상의 계약(7년 1억3000만 달러)을 한 추신수(32·텍사스 레인저스)를 제치고 아시아 선수 최고 연봉자로 이름을 올렸다.

할 스타인브레너 양키스 구단주는 "다나카는 일본이 낳은 최고의 야구선수이며 이번 스토브리그 FA 투수 최대어"라며 "그의 실력을 생각하면 합리적인 투자다"고 밝혔다.

브라이언 캐시먼 단장은 "조 지라디 감독 등 양키스를 이끌어가는 모든 구성원들이 다나카를 원했다"며 "다나카 영입 경쟁이 치열했고, 우리가 조금 더 투자해 다나카 영입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다나카는 지난해 일본 프로야구 라쿠텐 골든이글스에서 24승 무패 1세이브, 평균자책점 1.27을 기록했다. 2012년 시즌부터 28연승이라는 세계 야구계에 유례 없는 기록도 보유하고 있다.

/유순호기자

오승환 "시즌 목표는 최소 블론세이브"

일본 출국 "몸상태 굿"

오승환(31·한신 타이거스)이 훈련으로 검게 그을린 얼굴을 드러내며 '일도 끝판왕'을 꿈꿔 일본으로 떠났다.

오승환은 23일 출국 전 김포국제공항에서 "마무리 투수 중 가장 적은 블론 세이브를 남기는 게 시즌 목표"라고 말했다. 괌에서 개인 훈련을 하고 일본 취업비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22일 귀국한 그는 "지난해보다 몸 상태가 더 좋다. 부담된다기보다는 설레고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

일본에서 마무리 투수로 전성기를 보냈던 임창용(38)과 함께 괌에서 훈련한 오승환은 "각 팀 중심 타자들의 성향 등 조언을 많이 들었다"며 "'던지던 대로만 던져라'고 하더라. 자기 기록 오두 다 깨고 돌아오라고 했다"고 밝혔다.

오승환이 23일 일본 오키나와로 출국하기 전 김포국제공항에서 각오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오승환은 다음달 1일 시작하는 팀 스프링캠프에 앞서 가장 먼저 훈련지에 도착해 미리 적응할 계획이다. 다음달 25일 LG 트윈스와의 연습 경기에서 한신 유니폼을 입고 처음으로 실전에 등판할 예정이다.

/유순호기자

1골·2도움 펄펄 이승우 '맨 오브 더 매치'에 뽑혀

스페인 프로축구 '명문' FC 바르셀로나 유스팀에서 뛰는 이승우(16·카데테A)가 '맨 오브 더 매치'로 뽑혔다.

이승우는 23일 카타르 도하의 어스파이어 아카데미 풋볼 필즈에서 벌어진 알 카스 인터내셔널컵 맨체스터시티 FC(맨시티 잉글랜드)와의 5~6위 결정전에서 1골 2도움을 기록했다.

이승우의 활약 속에 바르셀로나는 맨시티를 6-4로 꺾고 5위를 차지했다.

한편 또 다른 한국인 유망주 장결희는 후반 15분 교체 투입돼 30여 분간 그라운드를 누비며 팀 승리에 힘을 보탰다. /김성준기자 ysw@

프로농구 전적 (23일)

팀	1Q	2Q	3Q	4Q	합계
모비스	10	20	15	20	65
인삼공사	27	9	13	12	61
LG	20	26	18	11	75
KCC	18	12	22	20	72
신한은행	10	18	23	20	71
국민은행	17	18	11	22	68

프로배구 전적 (23일)

팀	점수	점수	팀
도로공사	3	0	흥국생명
대한항공	3	0	LIG손해보험